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3-DEC 26
Copy 1963

2 호 1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3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2호 (216)

1963년 1월 (하)

차 례

—10대 과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서 적 해 제—

—문 답 학 습—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자

렴 계 철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5차 전원 회의는 로동 행정 사업을 1963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10대 과업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이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최근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할 데 대한 구체적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실로 오늘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를 가일층 발전시킴에 있어서 주되는 문제의 하나를 해결하는 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 1963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 *

《금년에 경제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로동 행정 사업입니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력 조직을 더욱 개선할 것이며 로력의 류동을 적극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고 공장, 기업소들과 기관들에서는 로력을 절약하여 농촌에 파견하는 농촌 지원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김 일성 수상의 신년사에서).

다 아는 바와 같이 로동 행정 사업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필수적인 행정 조직 사업이다.

사회주의 건설은 오직 나라의 주인으로 된 기백만 근로 대중의 의식적이며 창조적 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의식적이며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얼마나 창발적이며 능률적으로 일하는가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므로 나라의 로력 자원을 바로 쓰고 로동 생산 능률을 백방으로 제고하도록 사회적 로동 조직을 부단히 개선 완성해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승리의 담보로 된다.

레닌은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사회적 로동 조직이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경제적 기초, 그의 생활력 및 성공의 담보는 오직 《프로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에 비하여 일층 높은 형의 사회적 로동 조직

을 대표하며 실현하는 데 있다》(전집, 제 29권, 502페지)고 하였다.

로동 행정 사업이란 다름 아닌 사회의 로력 자원을 가장 생산적이며 절약적으로 리용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로동을 계통적으로 조직하는 행정 조직 사업이다.

따라서 로동 행정 사업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의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며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확고한 원칙으로 된다.

특히 현 시기 인민 경제의 규모가 전례 없이 방대해진 우리 나라의 객관적 현실은 그에 상응하게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앞에는 실로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당은 금년에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움으로써 석탄과 철광석 생산을 더욱 증대시키는 동시에 이미 조성된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사업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 중공업 기지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당은 직물 2억 5천만 메터 고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1964년에 가서 3억 메터의 직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빈틈 없이 준비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2~3년 내에 전체 인민이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보람찬 과업을 제기하였다.

당의 이 방침으로부터 출발하여 1964년에 농촌 경리에서는 300만 톤의 벼와 20만 톤의 육류를 생산하며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유지 작물과 섬유 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금년에 우리는 이미 점령한 알곡 500만 톤 고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알곡 생산의 질적 구성을 높이며 이 과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 각 부문 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도처에서 기술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는 한편 로동 행정 사업을 정확히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 ✽

현 시기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각급 당 조직들의 당적 지도를 일층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선차적인 문제는 각급 당 기관들과 당 일'군들이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는 것이다.

당 기관들과 당 일'군들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로동 행정 사업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생산 계획 수행 및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 그것이 노는 역할, 사회주의 기업 관리에서 로동 행정 사업이 차지하는 위치, 현 시기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와 그 수행 방도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짐

으로써만 대중을 이 사업에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있으며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한 실속 있는 당적 지도를 보장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로동 행정 사업이란 첫째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실시하여 로동자들에게 물질적 자극을 주는 것이며 다음으로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제반 대책을 세우며 로력 보충, 로력 후비의 양성, 로동 규률의 강화, 로동 보호 및 안전에 대한 대책들을 잘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즉 로동 행정 사업이란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활동을 옳게 조직하며 그들의 생산적 열성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로동 보호 물자나 내 주고 로임이나 계산 지불하는 실무적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취급하는 가장 중요한 행정 조직 사업이며 사람들과의 사업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로동 행정 사업을 차요시하면서 그것을 몇몇 로동 행정 일'군들에게만 일임하여 두는 일부 그릇된 현상을 철저히 시정하도록 강한 당적 지도를 주어야 하며 이 사업의 개선을 위한 투쟁에 직맹, 민청 등 근로 단체들을 인입하여야 한다.

생산 성(국) 당 위원회들과 지방 당 및 공장, 기업소 당 조직들은 성으로부터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에 이르기까지 경제를 지도하고 기업을 관리하는 책임적 지도 일'군들이 로동 행정 사업을 직접 조직 집행케 하며 그것을 생산 조직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한다면 이미 축성한 물질 기술적 토대에 기초하여 생산의 장성을 가일층 촉진시킬 수 있는 예비가 얼마든지 있다.

각급 당 조직들이 이 사업 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 분석하고 나타나는 결함을 제때에 바로 잡아 주며 이 사업에 책임 일'군들을 옳게 인입함으로써만 현존 로력을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적지 않은 로력 예비를 찾아 낼 수 있다.

따라서 당 조직들은 모든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로동 정량을 바로 제정해 주고 작업 평가와 로임 조직을 옳게 하며 로력 배치와 로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도록 하며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 로력 후비의 체계적인 양성 등 사업을 적극 조직함으로써 자기 공장, 자기 부문의 로동 행정 사업 전반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 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당 조직들은 농촌 로동 행정 사업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농촌 경리 앞에는 실로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알곡 생산을 계속 확대하며 공예 유지 작물의 생산도 급격히 장성시켜야 하며 축산업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 앞에 제기된 이

려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있다. 이미 뜨락또르의 대수만 하여도 작년 말 현재 경지 100정보당 0.78대의 수준(15마력 환산)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아직 농촌 기술 혁명은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을 완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며 그의 구성을 강화하고 농촌에서 로력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여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며 그 구성을 개선하고 로력 조직을 개선함으로써만 농촌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우리 당의 농촌 핵심 진지도 공고화할 수 있다.

각급 당 조직들은 매개 협동 농장에서 농사에 힘을 집중하는 방향에서 로력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며 농사일이 아닌 부차적 사업에 로력을 랑비하는 현상이 없도록 강력히 지도 통제하여야 한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농촌 기술 일'군의 대렬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 데 심중한 당적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그를 위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망 체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협동 농장원들이 모두다 일하면서 선진 과학과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농촌 로력의 질적 구성을 부단히 개선할 수 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한 대의 기계라도 더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냄으로써 농촌 경리에서 기경, 수확, 탈곡에 이르는 농산 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촉진하도록 강력히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며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 의한 농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계화 수준을 높이고 로력 조직을 합리화함으로써 절약된 로력을 농촌에 보내며 특히 중요 영농기에 《이앙, 제초 15일 전투》, 《추수 10일 전투》 등을 전 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여 농촌을 강력히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로동 행정 사업 체계를 확립하며 이 사업에 청산리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로동성을 비롯한 도, 시, 군 인민 위원회 로동 행정 기관들이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 통제적 기능을 일층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있어서 당 조직들은 각급 로동 행정 기관들이 중앙으로부터 지방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는 모든 로동 행정 부서들의 사업 직능과 분공을 명확히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위치에 튼튼히 서서 위임된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적인 지도 감독 기관으로서의 로동성과 도, 시, 군 인민 위원회 로동 행정 부서들이 공업 부문의 로력 보충 사업 일면에만 치중하던 종래의 수공업적이며 협소한 사업 범위와 역할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나라의 모든 로력 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반적 로동 행정을 조직하며 도시와 농촌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의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은 로동 행정 사업 체계를 정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지도 일'군들이 생산 현장에, 대중 속에 들어 가 당의 로동 정책을 철저히 해설해 주며 해당 기업소, 직장, 작업반 내의 구체적 실정을 정확히 반영한 로동 계획의 작성, 생산 조직과 밀접히 결부된 로력 조직, 동원적이고 현실적인 로동 기준량의 제정, 로임 조직과 로동 보호 안전 등 제반 대책을 직접 강구해 주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로동 행정 사업의 기본 내용을 이루고 있는 로동 정량, 로동 임금,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와 로력 후비의 양성, 합리적인 로력 배치와 로력 조직, 로동 규률의 강화, 로동 안전 등 이 모든 사업은 사람들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것은 모두 아래에, 생산 현장에 내려 감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조직 집행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지도 일'군들이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킨다면 아래 단위의 사업에서 걸리고 있는 구체적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 대중들을 당의 로동 정책 관철에로 인입하는 방법, 로동 행정의 구체적 문제들을 실지 모범으로 아래 일'군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로동 행정 기관들의 간부 대렬을 준비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급 당 조직들은 지식 있고 로동에서 단련되고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우수한 일'군들로 로동 행정 간부 대렬을 보충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배치한 간부들을 고착시키며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여 우리 당 로동 정책의 본질을 철저히 파악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을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도와 주는 것이다.

동시에 로동 행정 사업의 정확한 조직 집행은 높은 경제 기술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것만큼 로동 행정 일'군들 속에 로동 경제와 로동 보호 지식을 비롯한 필요한 지식을 소유시키는 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특히 로동 행정 기관 내 당 조직들은 로동 행정 일'군들 속에서 당성을 단련하며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당 생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로동 행정 기관들과 경제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로동 행정 사업 앞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의 구현을 위한 제 원칙

박 민 수

1

대안 사업 체계의 확립—이것은 일반적으로는 공업 관리 운영의 개선에서, 특수적으로는 계획화 사업의 발전에서 일대 혁명으로 된다.

대안의 사업 체계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공장 당 사업 체계와 생산 지도 체계, 생산 보장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였으며 그와 함께 계획화 체계도 근본적으로 재편성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에는 관리 체계의 개편 행정에서 계획의 작성, 시달, 집행 및 통제 등 계획화 사업의 전 분야에 걸쳐 군중 로선을 구현한 새로운 계획화 원칙들이 확립되였다.

계획화는 사회주의 기업 관리에서 기본이며 계획화 체계는 공장 관리 운영 체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계획화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의 토대 우에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대안 사업 체계에서 계획화 사업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과 유기적인 련계하에서 해결되였기 때문이다.

대안 사업 체계에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 체계와 통일적인 생산 지도 체계가 확립되고 계획 부서들의 기구가 개편된 것은 계획화 사업의 전변을 가져 오게 하는 중요 조건으로 된다.

우선 대안 사업 체계에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 체계의 확립은 계획화 사업 개선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새 관리 체계에서 공장 당 위원회는 공장 내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계획화 사업에서도 최고 책임자이며 최고 지도 기관이다. 공장 당 위원회는 계획 작성 방향을 제시하여 주게 되였으며 작성된 계획을 최종적으로 비준하게 되였다.

과거의 사업 체계에서는 유일 관리자의 주관에 의하여 계획이 작성되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경우 기관 본위주의와 주관주의가 허용되였었다.

그러나 새 체계에서는 집체적 토의에 의하여 계획이 작성되게 되였기 때문에 계획화 사업에서 이러한 편향들이 극복되게 되였으며 당 정책과 대중의 의사가 계획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게 되였다.

또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의 강화에 기초하고 있는 새 체계에서는 당 조직들의 활동과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이 제고됨으로써 작성된 계획을 생산자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계획 집행을 강력히 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되였다.

새로운 당 사업 체계에서는 로동 계급 속에서 정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기술 문화 교육을 강화할 데 대한 중요한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그리하여 생산자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은 고도로 발양되게 되고 그들의 기술 문화 수준은 더욱 급속히 향상되게 되였으며 계획화 사업에서 대중의 역할이 일층 제고되게 되였다.

대안 관리 체계에서 다음으로 계획화 사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은 통일적인 생산 지도 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종전의 공업 관리 체계에서는 생산 지도와 기술 지도가 지배인과 기사장에게 각각 분리되여 있었으며 계획화 사업은 사실상 계획 일'군들에게만 일임되여 있었기 때문에 계획 작성과 생산 지도 및 기술 지도 간의 유기적인 련계가 보장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흔히 기술 준비와 생산 보장이 선행되지 못하였거나 생산 공정들 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계획이 작성 시달되군 하였다.

새로운 관리 체계에서는 지배인과 그의 제일 대리인인 기사장이 계획, 생산 및 기술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하게 됨으로써 계획 작성에서 각 부서들 및 생산 단위들 간의 련계가 잘 보장되게 되였으며 기술 준비, 자재 보장, 설비 보수 등 준비 공정을 생산에 일층 선행시킬 수 있게 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에서는 또한 계획 부서들의 기구 자체도 새로운 계획화 체계의 요구에 적응하게 개편되였다. 직장 계획원 직제를 없애고 그것을 생산 지도부에 통합한 것은 그러한 조치들 중의 하나이다. 공장에서 서로 밀접히 련결된 생산 공정의 한 고리에 불과한 직장의 계획원이 공장의 다른 생산 공정들과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그러나 계획원들이 생산 지도부에 통합된 새 체계에서는 생산 지도부 내 일'군들의 집체적 협의와 호상 방조 밑에 련쇄된 공정들을 충분히 타산하여 정확한 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되였다. 또한 새 체계에서 계획원들은 생산 지도부와 직장에 이중적으로 속하게 됨으로써 계획원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직장의 현지 생산 지도원의 기능도 수행하게 되였으며 계획과 생산, 생산 지도부와 직장 간의 긴밀한 련계도 훌륭히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이상에서 보다싶이 새로운 관리 체계는 계획의 작성과 집행에서 군중 로선의 원칙을 구현하며 계획화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2

김 일성 동지는 대안 사업 체계에서 혁명적 군중 로선을 구현한 계획화의 새로운 원칙들을 천명하시였다.

대안 계획화 체계와 계획화의 제 원칙들은 계획화 사업 발전에서 력사적인 전변의 계기를 열어 놓았다.

혁명적 군중 로선을 구현한 계획화의

제 원칙은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생산자인 로동자들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생산자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김 일성,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것이다.

군중 로선에 기초한 대안의 계획화 체계와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생산자들과 직접 토의하여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새 체계에서는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제가 확립되고 우로부터의 지도가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게 되였으며 또한 시간 및 기타 조건들이 보장되여 근로자들이 계획을 연구하게 되고 그들 속에서 계획 토의 사업이 광범히 진행되게 됨으로써 생산자들이 계획 작성 사업에 대중적 범위에서 직접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그러나 과거에는 많은 경우 우에서 계획을 작성하여 생산자들에게 내려 보냈기 때문에 계획 작성에 생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없었다.

대안 계획화 체계에서 생산자 대중은 계획의 집행자로서 뿐만 아니라 계획 작성에의 직접적 참가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대안 사업 체계에서 생산자 대중을 계획화 사업에 전반적으로 인입하는, 극히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사회주의 건설의 현 계단에서 능숙하게 해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의 계획화 체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이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종래의 계획화 체계에서는 책임적인 생산 지휘 성원들은 계획 작성 사업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계획 작성은 생산 공정의 전반을 깊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전문 계획 일'군들에게 일임되였었다.

생산 관리에서 생산 및 기술 지도 기능과 계획 작성 기능이 분리되는 것은 생산 관리에 남아 있는 낡은 잔재의 중요한 표현이다.

새 계획화 체계에서는 지배인, 기사장, 직장장 등 책임적인 생산 지휘 성원들이 계획화 사업을 직접 장악하고 지도하게 되였다.

이것은 계획 사업과 생산 지도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데 대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리의 기본 요구가 대안 체계에서 훌륭히 실현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의 계획화 체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계획화 원칙은 작성된 계획을 생산자 대중 자신의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적지 않은 경우에 행정적으로 계획 수'자를 내려 먹이는 데 그쳤기 때문에 계획 수행에서 근로자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양시킬 수 없었다.

새 계획화 체계에서는 계획을 침투시키는 사업이 단순한 행정 실무적 사업으로가 아니라 당 정책을 알려 주고 계획 과제의 중요성과 그 실행 방도를 가르쳐 주는 당 정치 사업으로 전환되였으며 계획은 직장, 작업반에 뿐만 아니라 매개 로동자들에게까지 철저히 침투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작성된 계획이 생산자 대중의 생산 활동을 향도하는 지침으로,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고무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게 되였다.

대안의 계획화 체계와 새로운 계획화 원칙들은 이미 실생활에서 그의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대안 계획화 체계의 가장 중요한 우월성은 계획의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게 된다는 데 있다.

대안 계획화 체계에서는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생산자 대중과 토의하여 계획을 작성하는 원칙이 관철됨으로써 계획화 수준이 결정적으로 제고되게 되고 계획의 과학성이 보장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적 계획화의 기본 요구인 계획의 과학성은 그의 실현성과 동원성에 있다. 즉 계획의 과학성은 단순한 주관적 욕망에서 작성된 실현성 없는 몽상적 계획이나 근로자들의 창조적 힘을 믿지 않으며 생산 발전의 객관적 가능성과 예비를 충분히 타산함이 없이 작성된 소극적인 계획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과학적인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서는 당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회적 생산의 요소들인 로동력, 로동 도구 및 로동 대상을 정확히 타산하며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이룩된 제반 성과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획화의 이와 같은 요구들은 오직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생산자들인 로동자들과 토의하여 계획을 작성함으로써만 가장 훌륭히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은 우선 로동자들이 직접 기계 설비와 자재를 다루며 기술 공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계 설비의 상태,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및 자재 보장 정형 등이 어떠하며 생산에서 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며 또 그들이 무궁무진한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을 발휘하여 매일 매시 생산과 기술을 부단히 발전시키며 혁신적 경험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생산을 지도하는 일'군들이 당 정책과 생산의 제반 형편을 어느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타산하고 정확한 계획 작성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으며 또 생산 전반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 그들이 생산 고리들 간의 련계와 균형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약한 고리들을 풀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들을 제때에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의 작성은 계획화의 시초에 지나지 않는다. 계획화 사업에서 결정적인 단계는 계획의 집행 과정이다.

새 계획화 체계에서는 계획을 생산자들 자신의 것으로 전환시킬 데 대한 원칙이 관철됨으로써 생산자 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이 고도로 발양되게 되였으며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가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였다.

계획을 생산자 대중의 소유로 철저히 전환시키는 것은 또한 계획 자체를 더욱더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계획을 생산자들에게 침투시키고 그 실행을 조직하는 행정에서는 광범한 생산자들의 창조적 활동의 결과 시초에 계획에서 타산하지 못한 새로운 예비들이 적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계획을 생산자들에게 침투시키며 그 집행을 조직하는 행정에서 계획을 더욱더 완성할 수 있게 하며 계획

과제의 기한 전 완수를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상에서 보다싶이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생산자 대중들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생산자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원칙 즉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로선의 철저한 관철은 과학적인 계획의 작성과 작성된 계획의 정확한 집행을 위한 결정적인 담보이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로선의 원칙을 구현할 데 대한 문제가 전면적으로 천명된 것은 사회주의적 계획화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리론의 가일층의 발전으로 된다.

지금까지의 경제학 교과서들에서는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시킬 데 대한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지 못하였다.

계획화 사업에 생산자들을 인입할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은 되여 있었으나 실지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인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는 해명되지 못하였었다. 계획화 사업에 생산자들을 인입하는 문제가 원칙으로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계획화의 방법론과 실천적 문제 해결의 기초로는 제기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대안의 사업 체계에서는 계획의 작성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행정에 걸쳐 생산자들의 역할과 그들을 계획화 사업에 인입하는 형태와 방법에 관한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였고 또한 계획화 사업에서의 생산 지휘 성원들의 역할과 생산자들과의 련계 문제 즉 지도와 대중의 합리적인 결합에 관한 문제들이 옳게 해결되였다.

사회주의적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의 원칙은 대안의 사업 체계에서 한갖 원칙에 그치지 않고 계획화의 실천적 문제 해결의 기초로 되였다.

대안의 계획화 체계는 군중 로선의 원칙에 기초하여 계획화의 방법론과 실천적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한 모범으로 된다.

대안 계획화 체계에서는 군중 로선의 원칙과 계획화의 다른 원칙들과의 호상 관계가 명백히 설정되였다.

계획화 사업에서의 군중 로선의 원칙은 당성의 원칙과 더불어 계획화의 다른 원칙들—계획의 과학성, 중심 고리의 설정, 계획의 지령적 성격 등—을 규정하는 지도적인 원칙으로 된다.

사회주의적 계획화의 모든 원칙들은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여 생산자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이 고도로 발양될 때만이 자체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계획화의 모든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서도 군중 로선의 원칙은 규정적 의의를 가진다.

계획 작성에서 균형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서의 발란스적 방법 역시 군중 로선에 기초할 때만이 과학적인 계획 작성 방법으로 될 수 있다.

균형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생산과 기술의 부단한 발전은 낡은 균형의 타파와 새로운 균형의 형성을 요구한다. 균형을 그 운동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하여서는 균형의 변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정확히 타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균형을 부단히 변화 발전시키는 제 요인들은 주로 직접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혁신적 성과들을 이룩하는 생산자들의 산 실천적 활동에 의하여 산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획 작성의 기본 방법으로서의 발란스적 방법도 생산자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에 의해서만, 군중 로선 원칙의 철저한 관철에 기초하여서만 균형을 보장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로선의 원칙이 모든 계획화 원칙과 방법들을 규정하는 기본 원칙이며 초석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대안의 계획화 체계에서는 일'군들의 지도 작풍과 사람들의 호상 관계에서도 커다란 전변을 가져 오게 되였다.

새 계획화 체계에서는 생산을 지도하는 일'군들이 생산자 대중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의 집행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군중을 조직 발동하게 됨으로써 계획화 사업에서 력사적으로 내려 오던 주관주의가 타파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걸린 문제를 직접 풀어 주는 청산리 방법이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다.

또한 새 계획화 체계에서 계획 사업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지도와 계획 사업의 주인으로 된 생산자 대중의 통제가 강화된 결과 기관 본위주의와 기타 온갖 부정적 현상들이 극복되게 되였다.

새 계획화 체계에서 당 위원회의 령도 밑에 모든 생산자들이 다 같이 책임지고 계획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게 됨으로써 그들 속에서 생산 관리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자각성이 제고되게 되였으며 계획 집행에 대하여 모두가 다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달라 붙으며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어 나아가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강화되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대안 계획화 체계의 거대한 힘과 생활력의 원천이 있는 것이다.

대안 계획화 체계가 확립되고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로선의 원칙이 관철된 결과 생산력 발전의 추동력으로서의 생산에 대한 계획적 지도는 더욱더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 내부 예비의 동원은 축적의 기본 원천으로 되며 사회주의적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생산 발전의 제 가능성과 온갖 예비를 남김 없이 적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새 계획화 체계야말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는 것이다.

국가 계획 수행과 생산력 발전에서의 새 계획화 체계의 위대한 생활력과 우월성은 대안 전기 공장의 실천적 경험에서 뚜렷이 실증되였다.

이 공장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시키며 온갖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의 수행에로 로동자들이 한결같이 떨쳐 나서게 함으로써 지난 해 계획을 116.5%로 초과 완수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3

지난 1년 간의 생활과 대안 전기 공장의 경험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기된 대안의 계획화 체계와 원칙이 계획화 사업에서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확증하였다.

이제 문제는 새 사업 체계의 요구에 상응하게 일'군들이 사업 방법을 따라 세우며 지도 작풍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도 일'군들은 새 체계의 요구에 상응하게 계획 작성 사업에 생산자 대중이 직접적으로, 광범히 참가하여 자기들의 창발적 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 일'군들은 우선 계획 초안을 훨씬 앞당겨 작성함으로써 생산자 대중이 그것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여 주며 또 적당한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적 토의를 조직하여 주어야 한다. 지도 일'군들은 생산자들 속에서의 계획 토의 사업에 직접 참가하여 그것이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정치 사업을 선행시킴으로써 로동자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켜야 한다.

계획이 작성된 다음에는 지도 일'군들은 그것을 생산자들 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계획 집행을 철저히 조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지도 일'군들은 작성된 계획을 가지고 생산 현장에 내려 가서 생산자들에게 계획 집행의 선후차를 옳게 가르쳐 주며 계획 실행 방도를 명확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 실행 행정에서 걸리는 문제가 있게 되면 제때에 생산자들과 같이 토의하며 그것을 풀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생산자들은 확고한 각오와 자신심을 가지고 계획 수행에 달라 붙게 되며 그 수행에서 고도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하게 된다.

새 계획화 체계의 요구에 비추어 계획화 실무를 개선하며 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은 잡다한 문건 노름을 하던 종전의 계획화 실무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계획화 체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획화 실무의 간소화는 계획 지표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계획 지표 체계에는 부족점이 많았다. 실례로 적지 않은 기업소들에서 일정 전투 계획 지표가 기대별, 개인별로 구체화되지 못하였으며 작은 부속품들은 현물 지표에서 제외되였다. 특히 일련의 질적 지표들의 계획화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대안 체계의 요구에 적응하게 계획화 사업을 확고히 과학적 기초 우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지표 체계를 부단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계획화 체계는 지도 일'군들이 자기의 실무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생산 지도 일'군들은 기술 뿐만 아니라 경제 지식을 알아야 하며 계획 일'군들은 경제 지식 뿐만 아니라 생산과 기술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만 계획 사업과 생산 지도 사업이 통일되여 새 체계의 요구에 지도를 뒤따라 세울 수 있으며 계획화 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수 있다.

새로운 계획화 체계를 공고 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완전히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당 위원회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더 높여야 한다.

계획화 사업에서의 군중 로선의 원칙은 력사적으로 내려 오던 주관주의, 형식주의, 사무실적 사업 방법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 관습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 투쟁을 통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은 일'군들에게 새 계획화 체계가 가지는 혁명적 의의와 우월성을 옳게 인식시키며 낡은 사업 방법을 계속 고집하는 온갖 보수주의적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당 조직들은 또한 생산자들 속에서 정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산 관리와 계획화 사업에 무관심하던 낡은 습성과 잔재를 불살라 버리고 생산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더욱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당 조직들은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옳은 계획을 채택하며 특히 계획 실행을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군중들을 강력히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작성된 계획을 당 조직을 통하여 생산자 대중 속에 철저히 침투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계획 침투 사업이 계획 지표만 전달하는 단순한 행정 실무 사업인 것이 아니라 생산자 대중을 계획 수행에로 강력히 조직 동원하는 심각한 정치 사업임을 말한다. 당 조직들은 작성된 전투 계획을 당 정책과 결부시켜 침투시키며 생산자 대중에게 계획 과제의 의의와 그 실행 방도를 옳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당 조직들은 계획 집행에서 중심 고리를 옳게 규정하고 약한 고리와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여 그의 집중적 해결에로 력량 배치를 기동성 있게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당 조직들은 군중들 속에서 계획 수행 행정에서 나타난 긍정적 모범을 널리 선전 일반화하며 대중을 항상 새로운 혁신에로 고무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 밑에 전체 군중이 한사람같이 궐기하며 새로운 사업 체계에 청산리 방법을 따라 세워, 대안의 새 계획화 체계가 자기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한다면 1963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도 또한 빛나는 승리가 달성될 것이다.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윤 우 홍

1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사회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사회주의 건설은 그들 자신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인민 대중의 창조적, 적극적 활동이 강화되고 그들 속에서 민주주의가 발양됨이 없이는 사회주의 사회를 발전시킬 수 없고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킬 수 없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은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본질적 추세로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전 시기,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시기, 프로레타리아트의 국가적 지도의 시기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착취자들에 대한 진압이며 절대 다수인 근로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 즉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 국가,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는 착취자, 억압자들로부터 일체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민주주의로부터 제외함으로써 인민 대중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권리,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보장한다.

부르죠아 국가는 자본가, 지주들에게 기업의 자유, 착취의 자유, 매매의 자유, 치부와 랑비의 자유 기타 온갖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착취 대중의 반항을 진압하며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을 압살한다.

계급적 지배의 도구인 국가는 그 어떤 류형, 그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어느 계급의 독재이며 동시에 어느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다. 독재를 떠난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떠난 독재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는 것은 그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레닌이 이미 오래 전에,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고 프로레타리아 독재 대신에 《순수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나선 변절자 카우츠키의 반맑스주의적, 반동적 립장을 여지 없이 폭로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순수 민주주의》, 《초계급적 민주주의》란 원래 있을 수 없다. 카우츠키가 말한 《순수 민주주의》는 부르죠아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모호하게 하기 위하여 꾸며 낸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레닌은 카우츠키를 폭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상식과 력사를 조롱하지 않는다면 아직 각종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순수 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없고 다만 계급적 민주주의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전집, 제 28권, 296페지).

오늘도 온갖 반맑스주의자들이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치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시도의 진의도는 부르죠아적 《자유》와 부르죠아적 민주주의, 결국 자본주의적 질서를 옹호하는 것으로 밖에는 될 수 없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는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르죠아 민주주의보다 몇 백배나 더 민주주의적인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근로 대중의 반항을 진압함으로써만 자본가, 지주들에게 온갖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부르죠아 국가는 대중에게는 다만 민주주의를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부르죠아 민주주의는 대중에 대한 허위이며 기만이다.

사회주의 국가,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력사상 처음으로 착취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청산하고 전체 근로자들, 전체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인민의 절대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와, 인민의 착취자 억압자에 대한 폭력적 억압 즉 민주주의로부터의 제외—바로 이것이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넘어 가는 과도기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변모인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야 비로소, …그 때에야 비로소 참으로 완전하고 참으로 아무런 제외도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또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조락하기 시작할 것이다》(레닌, 전집, 제 25권, 592~593페지).

우리는 공산주의에로 들어 가는 그 때까지 계속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인민 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행사하게 하며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고 그들이 국가 및 경제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주요한 담보이다.

2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대중에게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며 그를 행사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들을 보장하는 것만으로써는 성과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 인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원만히 향유할 수 있게 하자면 국가가 인민의 원쑤를 철저히 진압해야 하며 대중에 대한 지도에서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회의 잔재를 청산하며, 모든 사업에서 당의 군중 로선이 철저히 관철되여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생산 수단의 주인인 근로자 대중 자신의 의식성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하며 국가 및 사회 활동에 대중이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물론 국가의 통일적이며 중앙 집권적인 지도가 확보되

는 조건 하에서, 광범한 민주주의와 정연한 질서, 의지의 통일성이 결합되고 통일되는 조건 하에서 해결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당은 로동 계급의 대중적 조직의 최고 형태이며 그의 전위대이다.

당은 계급의 가장 우수하고 헌신적인 투사들로 조직된 부대이며, 사회 발전의 법칙에 의거하여 과학적인 지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 속에서 높은 위신을 가지고 있다. 당은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정확한 계급 정책을 실시하며 혁명적 군중 로선에 립각함으로써 인민의 리익과 권리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인민을 교양하고 그들의 의식성과 자각성을 부단히 계발한다.

이러한 데로부터 당의 령도는 대중을 자유로운 창조적 활동에로, 적극적이며 자각적인 활동에로 불러 일으키며 민주주의의 고도의 발양을 보장한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지 않고, 대중 속에서의 당의 정치 사업과 교양 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개화 발전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오직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당이 대중의 계급 의식을 부단히 높이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에서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 없이 발휘시킬 때 민주주의는 고도로 발양될 수 있다.

우리 당의 력사적 경험은 바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과 창발성이 높이 발양되는 데서, 적대 분자를 제외한 각계 각층 전체 군중이 빠짐 없이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되는 데서 그리고 국가 및 경제 관리에 광범한 대중이 직접적으로 참가하게 되는 데서 중요하게 표현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발휘되는 대중의 고도의 창조적 적극성과 창발성은 그들이 얼마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표현이다. 왜냐 하면 사람들의 무궁한 창조적 적극성, 창발성은 오직 그들이 국가와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할 때라야만 용솟음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양은 국가 및 경제 관리에 광범한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데서 가장 뚜렷이 표현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행정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 완성 정도는 대중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국가 및 경제 관리에 참가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 당은 자기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고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부단히 개화 발전시키고 있다.

대중 속에서의 우리 당의 절대적인 위신, 당에 대한 대중의 무한한 신임, 당과 대중과의 확고한 통일—바로 이에 기초하여 당은 국가 및 경제 문화 사업에 대한 자기의 령도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

우리 당은 자기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련의 중요한 대책들을 강구하여 왔다. 특히 모든 분야에 걸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제의 전면적인 확립, 당 사업 체계와 방법의 결정적인 개선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당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해당 당 위원회를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되게 함으로써 집체적 령도제를 더욱 강화 발전시켰다.

당은 또한 큰 생산 기업소 당 위원회들을 도 당 위원회에 직속시키고 그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지방 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의 권한도 확대하였다.

당은 청산리 방법에 기초하여 아래로 내려 가서 도와 주는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전 당에 확립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찬란한 개화 발전은 바로 당 사업 발전에서의 이와 같은 전변들과 직접으로 련관되여 있다.

당의 령도의 강화는 중앙 집권적인 지도를 강화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어느 부문에서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이 해당 단위의 당 위원회들에 집중되며 당 위원회가 직접 책임지고 그의 집체적인 지도 하에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당의 집체적인 령도가 강화되고 청산리 방법이 관철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중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창발성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 사업의 모든 환절에서 당 위원회의 집체적인 지도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됨으로써 대중들의 민주주의적 의사와 창발적 의견들이 자유롭게 더 적극적으로 국가 및 사회 사업에 반영되게 되였으며,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고 사람과의 사업을 위주로 하는 당적 사업 방법이 관철됨으로써 대중을 당 정책과 공산주의 의식으로 더 잘 교양하고 당 정책 관철에로 더 잘 동원할 수 있게 되였다.

특히 청산리 방법에 의하여 지도가 하부에 더욱 접근되고 군중 속에 심입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는 더욱 강화되고 대중이 흉금을 털어 놓고 모든 문제들을 당과 상의하게 되였으며, 그들의 창발성이 남김 없이 동원되게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나라 근로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재능과 창조적 열의가 적극 발휘되고 민주주의가 높이 발양되고 있는 것은 천리마 운동에서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

천리마 운동의 행정에서 매개 근로자들은 경제와 과학, 문화, 예술, 교육, 체육 발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천리마 운동은 우리 당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이다》 (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당의 령도가 강화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광범한 대중을 국가 및 경제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가 강화된 결과 국가 및 경제 관리에 대중의 의사와 지혜가 가장 훌륭히 반영되게 되였으며 대중이 관리에 자각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데서나 행정

및 경제 사업에 대하여 어느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당원들과 군중들이 책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집체적 령도 기관인 당 위원회가 책임지고 있다.

당적 지도의 강화는 대중들의 자각성과 의식성을 부단히 제고시킴으로써 대중 자신이 관리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발동되도록 하며 자기의 온갖 지혜와 창발성을 남김 없이 발휘하게 한다.

당 위원회는 당 조직들을 통하여 전체 당원들을 국가 및 경제 관리에 적극적으로 발동시키며, 전체 당원들은 전체 군중을 의식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당 위원회의 령도 밑에 전체 당원들과 전체 근로 대중이 다 생산을 잘 하기 위하여, 공장을 더욱 잘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이상 더 철저한 집체적 령도는 없으며 이 이상 더 공장의 집체적 력량을 발휘하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김 일성,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이와 같이 국가 및 경제 관리에의 광범한 대중들의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참가는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는 것을 통하여서만 성과 있게 보장될 수 있다.

공업 및 농업에서의 새로운 지도 체계는 생산에 대한 당 위원회의 령도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함으로써 광범한 생산자 대중을 경제 관리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수 있게 한 기업 관리의 새로운 형태이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제가 확립된 대안의 사업 체계에서는 기업 관리 운영에 대중의 의사와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대중을 다 움직이게 함으로써 광범한 근로자들이 공장을 더 잘 관리 운영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기업 관리에서의 근로자들의 자각적인 활동은 그들이 자기가 맡은 생산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계획화 사업, 로동 행정 사업 등에 직접 참가하며 내부 채산제의 도입, 설비 관리 사업 등을 자체로 수행하는 사실들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새 농업 지도 체계 하에서도 기업적 지도가 강화되고 청산리 방법이 더욱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광범한 협동.농장 농민들이 계획의 수립과 그의 집행을 위한 모든 생산 관리 사업과 재정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더 잘 참가하게 되였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 보수를 받는 일 이외에 국가 및 경제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게 된다는 이것은 그들이 국가와 생산 수단의 주인이라는 립장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자기의 립장, 자기의 권리와 의무에 얼마나 부합되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높이 발전하고 있는가를 가장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각계 각층 군중들이 빠짐 없이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되여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 받고 있는 사실도 우리 당의 령도의 강력한 작용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철저한 계급 로선에 립각하여 사회 정치적 처지가 복잡한 계층들 속에서 적아를 엄격히 구분하고 적대 분자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제압하며 혁명의 편에 설 수 있는 군중을 한 사람도 남김 없이 쟁취하기 위하여 그들을 아량 있게 포섭하고 인내성 있게 교양 개조하며 차별 없이 대우하는 방침을 견결히 관철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도를 대중 속에 심입시키고 청산리 방법을 구현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당적 지도는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당을 믿고 당에 모든 운명을 의탁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서 보다 광명한 래일을 내다 보면서 온갖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고 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모든 군중이 자기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물질적 문화적 복리를 확고하게 보장 받고 있다는 이것은 계급적 립장에 철저히 서서 군중 로선을 확고하게 관철하는 우리 당의 령도적 역할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계급적 원쑤를 제외하고는 각종 민주주의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 실지로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각계 각층 전체 군중이 정치적 권리, 로동과 휴식, 교육과 보건 등에 대한 모든 공민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경제 문화 건설에서 높은 열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당과 정부의 주위에 한사람같이 결속되여 있다.

이것은 지난 해 가을에 진행된 최고 주권 기관 선거에서 유권자의 100%가 참가하여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 투표하였다는 력사상 류례 없는 사실이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 *

사회주의 제도는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양될 때에만 반석같이 공고화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도 민주주의가 발양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것은 당의 강력한 통일적인 령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 운동의 부단한 앙양—경제 및 과학 문화 사업에서의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창발성의 무궁무진한 발현, 국가 및 기업 관리에의 그들의 적극적인 참가, 이것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미증유의 개화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체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 당의 현명한 령도와 어떻게 밀접히 련관되여 있는가를 알고 있다.

우리는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단히 제고할 것이며 이리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더욱더 개화 발전시킬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강력한 시위로 될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문학 예술 평론의 선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김 하

최근 년간에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당의 정확한 문예 정책에 고무되면서 력사적 및 현실적 문제를 취급한 우수한 작품들을 적지 않게 창조하였으며 계속 창작적 열의에 충만되면서 새로운 경지를 탐구하고 있다. 문학 예술에 대한 인민 대중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으며 그들은 훌륭한 예술 작품들에서 사회-미학적 교양을 위한 직접적인 모범을 본받고 있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생활적 교과서》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 예술은 널리 국제 무대에 진출하여 세계의 인민들로부터 《황금의 예술》, 《금강석의 예술》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문학 예술의 이러한 성과와 관련하여 평론가들 앞에는 그것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야 할 신중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평론은 문학 예술 분야에서 달성된 성과들을 보다 심오히 분석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창작 실천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방조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예술 작품들을 근로 대중들에게 광범히 보급하면서 그들의 미학적 취미를 발전시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 관람자, 청취자 대중을 문학 예술의 새로운 발전에 작용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 *

이 론문은 우리의 문학 및 예술 평론의 개선과 관련되는 많은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이 론문에서 현존 평론가들의 력량을 가지고 평론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계속 남아 있는 선도성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려고 한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의 평론은 적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며 당적 문예 로선과 맑스-레닌주의 미학 원칙에 립각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것은 작가 예술가들의 창작 생활에 《간섭하고》 있으며 창작 실천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론의하고 있으며 리상적인 충고도 주고 있다. 최근 년간만 하더라도 우수한 소설들과 무대 작품들의 사상-미학적 분석에 많은 평론들이 바쳐졌으며 또한 적지 않은 평론과 론문들이 문학 예술의 보다 높은 발전을 위해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아직 남아 있는 사상적 및 예술적 결함들에 대해서 론의하고 있다.

그러나 평론은 일방으로 창작 실천가들을 돕는 사업을 너무나 불충분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타방으로 문학 예술 애호가들과 인민 대중의 장성하는 미학적 요구성을 신속하게,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밤낮 똑같은 소리야!》, 《무슨 말을 하자는 것인지 리해할 수가 없다》, 《평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러한 식의 불만이 자주 들려 온다. 이것은 다 옳은 말이며 정당한 비판이다.

평론의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선도성 문제이다. 평론의 선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론가들이 첫째로 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의 평론들에는 작가 예술가들이 현실을 모르며 그들이 현실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비난이 많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론가들은 작가 예술가들에 비하면 생활을 더 모르며 현실에서 그들보다 더 뒤떨어지고 있다. 만약 평론가가 생활을 모른다고 하면 작품에 묘사된 생활이 얼마나 전형적이며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교양적 가치가 있는가 등등에 대하여 어떻게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평론가들이 처해 있는 생활의 특수성으로 해서 특히 그들은 오늘날 작가 예술가들의 창작 기지로 되고 있는 공장과 농촌, 탄광과 어촌—한 마디로 들끓는 우리의 현실에 더 많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평론가에게도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리해가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문학가, 예술가, 평론가에게는 생활에 대한 백과 사전적 지식이 필요하며 창작을 위해서 그들은 세계적 규모에서 과거 및 현대 문화의 달성 그리고 경제, 력사, 문학, 철학 등등의 물질 및 문화 분야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들을 충분히 리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광범한 지식이 평론가에게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직접적 및 간접적 지식들에 기초함으로써만 평론가는 어떠한 문학 예술 작품이라도 자신 있게, 확신성 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창작가를 도우며 문학 운동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에 대한 광범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경험(직접적 리해)도 없다고 하면 하는 수 없이 평론가는 어떠한 작품의 주제가 가지는 의의를 설명하고 문학 및 예술의 원론적(너무나 공인된!) 문제들을 해설하면서 몇 마디 《훈시》나 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일을 끝마치고 말 것이다. 이러한 평론이 창작 실천을 돕는다면 얼마나 도울 수 있겠는가.

어떤 문학 작품이 출판되기 전에 편집부에 찾아 가서 그 사정을 알아보거나 혹은 개별적 작가에게 달려가서 그의 작품에 대해서 혹은 우리 문학의 현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며 론의하는 평론가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것은 고사하고 출판된 작품을 들고 (혹은 예술 작품을 보고) 저자를 찾아가서 진지하게, 솔직하게 예술적 문제들을 론의하는 평론가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금시 출판된 작품을 읽고 거기에 반영된 생활을 보다 원만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평론가 자신이 그 생활을 직접 목격하고 연구하는 기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이상에서 지적된 우리의 희망을 모두 순전히 리상적인 요구들이라고만 볼 수 있겠는가? 반대로 그 요구들은 진정한 평론가의 의무이며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모든 사업의 지도를 현지에, 창조적 힘과 사색이 용솟음치는 곳에로 접근시키며 직접 거기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의 원칙이다. 김 일성 동지는 청산리와 대안 전기 공장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그에 대한 산 모범을 보여 주었다.

우리 평론가들이 개별적 예술가들의 창작 생활에 더욱 침투하고 편집부들과

보다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독자, 관람자 대중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정열적으로 노력할 때만이 자기 사업에서 청산리 정신을 철저히 구현할 수 있다. 그 때에야만 평론의 선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생활도 모르고 개별적 예술가의 처지도 깊이 리해하지 못하고 독자나 관람자의 요구도 불충분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그 평론가는 어떤 문제성을 제기할 수도 없고 창작가를 방조할 수 없고 독자를 가르쳐 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문학 예술 운동의 선두에 서기는커녕 작가 예술가들과 발맞추어 나갈 수도 없으며 그들의 뒤꼬리를 따르는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의 평론을 볼 때 그것은 전반적으로 문학 예술 사업의 뒤꼬리를 따르고 있다. 이 《뒤꼬리식》 평론의 결함들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일부 평론가들은 작품들을 적게 읽으며 정기 간행물조차 《비정상적》으로 읽고 있다. 그들은 자매 예술을 극히 불충분하게 연구하며 문학 예술의 전반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덜 돌리고 있다. 이러다나니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 현상은 시급히 극복되여야 한다. 보다 많은 작품들과 출판물에 대한 연구가 심오히 진행될 때에만 창작적 열의가 생길 수 있으며 또한 리론적 문제의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침묵을 지키기 좋아하는 류의 평론가를 한 독자는 아주 예리하게 풍자하고 있다. 《사상-예술적으로 저조한 작품인 줄 알면서도 잠자코 있다가 그 작품이 이러저러한 평을 받게 되면 그 때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죄다 걸어 가지고 한 몽둥이로 내려 갈기는 것이다. 그런 힘과 〈정열〉이 있었다면 어째서 예술가를 미연에 경계하고 그를 시정시켜 주지 못하였는가?》고.

남의 결함을 지적하기는 언제나 쉽고 비판은 언제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함의 원인을 옳게 적발하고 친절하게 충고를 주어 고치게 한다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우리 평론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비판이 〈때려 부수자〉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성과, 보다 옳은 로선을 취하려는 데 그 기본 정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선집, 1954년 판, 제3권, 247페지).

일부 평론가들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현상들은 흔히 보신적인 태도와 관련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사실상 결합되여 있다. 이것은 평론의 선도성과 전투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병집으로 되고 있다. 일부 평론가들은 자기 평론에 대한 확신성이 부족한 데서, 그러다가 실수나 하지 않을가 두려워하는 데로부터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평론가는 대체 언제까지나 입을 다물고 있을 작정인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자가 현명한 것이 아니라 큰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쉽게 시정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레닌은 지적하였다.

일부 평론가들은 당의 문예 로선을 불충분하게 리해하는 데로부터 작품의 생활적 의의를 제때에 포착하지 못하며 따라서 평론으로써 대중의 미학적 수요를 신속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서로 약속이나 한듯이 침묵을 지킨다고 하면 결국 론쟁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독단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아직도 한두

평론가의 의견으로써 작품의 출판 《가치》가 좌우되는 현상이 있으며 아직도 문학 및 예술에 대한 개별적인 리론 문제가 국한된 몇 사람들 속에서만 론의되는 현상이 있다.

아직까지 론의의 대상으로 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론의된 작품들과 리론적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의 작품을 내놓고 평론가들의 《판결》을 기대하는 작가들의 수는 적지 않다. 또한 작가 예술가들은 창작 실천과 관련하여 긴절한 문제(례컨대 갈등에 대한 문제, 기록주의와 도식을 타파하는 문제, 문학 예술에서 민족적 특성을 구현하는 문제 등등)들의 리론적 해명을 인내성있게 기다리고 있다. 모든 평론가들이 보다 많은 작품들과 보다 많은 리론적 문제들의 분석과 해명에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평론의 새로운 발전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광범한 의견 교환, 예리한 론쟁은 창작가들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미학적 취미를 높이고 세련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론쟁을 통해서만 진리는 공고화되고 완성되기 때문이다. 《진리는 론쟁에서 탄생한다》고 옛사람들이 말한 것도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의견 교환과 론쟁을 거쳐서 매개 평론가는 자기의 미학적 견해를 시정할 수도 있고 또한 풍부화시킬 수 있다. 말하자면 그러한 과정이 바로 평론 사업 자체를 발전시키며 나아가서는 문학 예술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킨다. 이 경우에 평론을 가리켜 《활동하는 미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론쟁이 바로 이렇게 되자면 주관적 견해만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되여서는 안 된다. 론쟁은 어디까지나 객관성에 기초해야 하며 온갖 주관주의적 견해와 취미 본위주의는 진정한 론쟁과 인연이 없다. 론쟁은 개별적 평론가나 필자의 주관적 취미를 소개하거나 시위하는 리용물이 아니다. 론쟁—이것은 언제나 독자 및 관람자 대중을 념두에 두면서 해당 작품의 객관적 예술적 규범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강력한 수단이다.

례컨대 어떠한 작품을 론의하면서 《이러한 처리 방법은 나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다》느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져 가는 것이 좋겠다》느니 하는 식으로 매개인이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애먹는 것은 저자밖에 없다.

론쟁에서 우유부단하고 절충주의적 태도도 허용될 수 없다. 《일련의 긍정적인 시도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성과를 걷지 못하였다》든가 혹은 반대로 《그 작품에는 적지 않은 부족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술의 새로운 발전을 보여 주는 성과작이다》하는 식의 론의들이 출판물들에 없지 않다. 그것들을 독자나 관람자는 과연 어떻게 접수해야 할 것인가?

예술 작품을 《좋다》 혹은 《나쁘다》하고 평가할 수 있지, 중립적 태도는 있을 수 없다. 론쟁에서 절충과 타협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까지나 유해롭다.

다음으로 우리 평론에서 극복되여야 할 문제는 아직도 일부 평론가들이 작품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그 저자의 얼굴부터 보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보고 다시 말해서 저자의 창작 경력이나 보고 그의 작품을 평가하는 사실—이것은 당적 평론의 규범을 위반하는 현상이다. 당과 인민 앞에서 작가

예술가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노력도 동일한 요구성과 원칙에서 평가되여야 한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술은 인민이 창조하는 것이며 예술가는 그것을 《보충하고》, 《정리하는》 일을 할 따름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해도 작품은 인민의 립장에서 정당하게 론의되고 판단되여야 한다. 어떤 작가에 대해서 평론가가 선입견을 가지거나 편견을 범하는 것은 우선 인민 자신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론가가 저자의 창작 경로나 어떠한 공훈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해당 예술가에 대한 모욕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창작 생활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문학 예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 관람자 대중에게는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 오는가! 작품 평가에서 공정하지 못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실례에서 볼 수 있다 즉 작품이 예술적으로 보잘 것 없지만서도 저자의 체면을 보아서 《그래도 사상적 의도는 의의가 있다》는 식으로 평가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작품의 내용이 아무리 의의가 있어도 그것이 예술적으로 《가공》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술 작품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작품은 서점 진렬장에 오래 동안 끼여 있거나 설사 사 갔다고 하여도 누구도 읽지 않을 것이며 앞을 다투면서 고서점으로 《달려 갈》 것이다. 이것도 《예술적》 법칙이다.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못한 글로써 사실상 건전하고 활발한 평론의 길을 가로 막는 사람들에게 인제는 《가장 철저하며 가장 랭혹한 비판과 아울러 작가가 범한 과오를 시급히 제때에 시정하여 옳은 방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려는 가장 친절하고도 공정한 호상 협조의 정신에 립각한 문학 평론》(김 일성 선집, 1954년 판, 제3권, 248페지)을 쓸 것을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이다. 그러한 평론만이 창작가를 진정으로 도우며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평론이 문학 예술의 새로운 부대—신인들을 정확히 포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옳은 방향으로 지도할 수도 있다(사실 우리의 평론은 신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심을 덜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들을 더욱 고무해 주고 더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평론의 발전을 위해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의 리론적 심도와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적지 않은 론문들에는 예술 작품의 형상성과 기교적 측면에 대한 론의가 부족하다. 관평식 문학 평론들이 많으며 예술적 관평들에는 일반 신문 기사의 기분이 너무나 많다.

평론들에서 작품들을 사상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응당하다. 그러나 그것도 당 결정들을 기계적으로 전달하거나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정도에 머무른다고 하면 이것은 실제상 창작가들을 돕지 못하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분한 감만 자아 낸다. 이 때문에 출판사 당국으로부터 《서론은 생략하라》느니 《평론을 짧게 쓰라》는 등의 의견을 받게 된다. 이것은 다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다. 평론에 어떤 문제성이 없을 때, 과학적 심도가

없을 때, 작품의 사상-예술적 측면들에 대한 깊은 분석이 없을 때 그리고 론문 자체가 체계 정연하지 못하고 따분하고 비형상적이며 랭랭한 언어로 씌워졌을 때 《글의 값이》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다. 말이 나온 김에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의 평론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다. 일부 필자들은 써 놓고 나중에 자신도 고개를 기웃할 수 있는 문장을 쓰고 있으며 마치 어렵고 고답적인 술어들과 문장 구조에 평론가의 《박식》이 있기나 한듯이 은연중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역시 독자들의 의견이다. 추상론을 적게 풀고 《실상론》을 보다 많이! 이것이 예술 실천가들의 목소리이다.

그렇다! 추상적 론의들이 아직 많다 이것이 언제나 작품의 구체적인 분석을 방해하고 있다. 일부 평론가들은 개별적 작품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의 우점과 결함을 종합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리론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알려진 철학적 명제들과 문학 원론, 예술의 일반론에 모든 작품들을(때로는 매개 예술, 매개 쟌르의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돌려 맞추는 일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아마 이런 평론가들은 실천이 리론을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리론이 새 리론을 낳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평론가들에 의해서도 말하자면, 창작에서 일부 도식이 생겨났으며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술 실천가들과 대중들은 보다 구체적인 평론을 요구한다. 예술가가 생활을 모르면 바로 어느 측면을 어떻게 모르는가 또한 형상성이 부족하면 바로 어디가 어떻게 부족하고 기교가 부족하면 무엇 때문에 바로 어째서 부족한가 등등에 대해서 평론은 생생하게, 납득성 있게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결함들의 시정 대책까지도 친절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작품의 우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럴 때에만 평론은 사람들을 미학적으로 교양할 수 있을 것이다.

평론의 과학성과 리론적 수준 제고는 매개 평론가가 생생한 자료에 립각해서 심오한 분석을 가할 때만 기대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매개 작가에게 고유한 관찰 방법, 그의 창작 수법(필치), 그의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며 창작적 경향에 대해서 충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런 작품, 아무런 예술가의 창작에도 해당되고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이며 주관주의적인 평가는 바로 평론가가 해당 작가의 개별적 작품이나 전 창작을 깊이 리해하지 못할 때 엿볼 수 있다.

례컨대 《…그러한 특색이 없는 바로 이 곳에 그의 시의 특질이 있는바 그것은 한 마디로 소박성과 진실성이다》. 이러한 식의 규정은 주관주의적 무의미성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소박성과 진실성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박 세영의 창작에도 적용될 수 있고 박 팔양의 《진달래》에도 해당될 수 있고 혹은 뿌쉬낀이나 뵤른쓰의 시를 두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인민적 의의를 가지는 모든 천재적이고 탁월한 작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소박성과 진실성을 내

LIBRARY OF CONGRESS

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론의 리론적 졸렬성은 개별적 작품이나 창작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평론들의 저자들은 예술적 형상을 비속하게 실무적으로 리해하고 있다. 《…빈농이 어떻게 렵총을 가질 수 있겠는가? 혹은 소작인의 딸이 지주의 첩으로 되는 것은 어쩐지 모욕적이다》 이러한 식의 비속 사회학적 론의들이 이따금 지상 토론들과 작품 합평회들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론의들에는 예술적 형상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의 변증법이 무시되고 있으며(문학 예술도 포함한) 의식의 적극적 역할이 거부되고 있다. 문학 예술 《사업에 있어서는 개인적 창의성, 개인적 기호에 큰 자유를 보장하며 사색과 환상, 형식과 내용에 큰 자유를 보장할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한 레닌의 교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작품 평가에서 비속화와 단순화의 경향은 평론가의 관조적이며 방관적인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우리 평론에는 친절성이 보다 요구된다.—작품을 성실하게, 신중히 《애착》을 가지고 보는 습성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가…그리하여 평론가는 예술가의 창조적 세계로 뛰여들어 가며 그가 체험한 것을 자신이 체험하면서 작품을, 예술적 형상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 평론가는 작가와 같이 애타하며 고민하며 혹은 그와 함께 흥분하고 그와 함께 원쑤를 증오한다. 그 과정에 평론가는 작가와 《경쟁하며》 그가 빠뜨린 것을 혹은 보충하면서 혹은 자기의 환상과 허구를 전개한다. 한마디로 해서 작가와 함께 생활을 론하고 그와 함께 《묘사하고》 그와 함께 고상한 사상과 감정을 위하여 공산주의 리상을 위하여 투쟁하는 평론가—이것이 진정한 평론가이며 그런 평론가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평론 사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작가 예술가들 사이에서 당적 비판의 분위기를 강화하고 창작 문제들에 대한 호상 비판의 정신을 보다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일부 작가 예술가들 가운데는 평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그것을 단순히 시비나 비난으로 간주하는 습성이 있다. 여기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평론가들에게 개인 감정을 가지는 일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우선 해당 동맹과 예술단체들 내부에서 창작 생활에 대한 당적 비판과 호상 비판의 정신이 지배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출판사 편집부들에 대한 평론가들의 의견도 결코 없지 않다. 편집 일'군들은 작가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평론가들을 자기 사업에 인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서재의 학자들》을 더욱 발동시키고 흥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좋은 평론이 없이 문학 예술의 발전, 보급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작가 예술가와 인민대중의 련계—《우정》을 강화하는 것도 평론이 아닌가!

평론의 선도성과 그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평론가 자신이 절실히 느끼는 문제를 쓸 수 있게끔 또 그런 론문이 될 수 있는 한 많이 발표될 수 있게끔 편집 일'군들의 사업이 개선되였으면 한다. 편집 당국이 계획 작성에서 평론가와의 밀접한 련계가 없이 일면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평론가는 피동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원고 청탁서를 기다리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평론은 《수공업적 부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처지에 떨어진 평론가에게 무슨 요구인들 못 하겠는가. 그리하여 평론가가 편집부의 의향을 물어 가면서 글을 쓰는 현상까지 없지 않다. 편집부의 《요구》가 있으니까…그 《요구》 때문에 편집부에 적극적으로 투고하는 분위기가 서지 못하는 것이다.

편집 일'군들이 평론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창작 계획에서 합리적인 일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 때야만 평론의 선도성과 리론적 심도도 예견될 수 있다. 그리고 평론을 통해서, 유익한 론쟁을 통해서 예술가들 사이에서 진정한 창작적 분위기가 지배하도록 하는 문제도 많은 의미에 있어서 편집 일'군들에게 달려 있지 않을가…

평론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들은 강의실과 서재 밖에서 벌려지는 들끓는 우리 현실과 창작가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깊고 전면적인 리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평론가들은 당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보장 받게 된 년중 3개월의 창작 휴가를 유익하게 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평론가들 자신이 솔선 노력해야 하겠지만 또한 해당 창작 동맹이 평론가들의 창작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 힘 써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또한 매개 창작 동맹의 노력에 의해서만 평론가 대렬의 보충 및 확대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대렬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문학 평론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다른 예술 분야들에서 더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조형 예술, 영화, 무용, 연극 예술들에 대한 론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주로 《내용 설명식》 관평들과 문학 평론가들의 론문들에 의해서 적당히 얼버무려지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오늘날 우리의 전체 작가 예술가들은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 보고에서 천명된 문학 예술의 과업과 김 일성 동지의 1960년 11월 27일, 1962년 3월 11일 교시를 실천하기 위하여 거대한 현실적 문제들을 대담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 길에서 이미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으며 또 새로운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평론 앞에는 문학 예술의 발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전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작가 예술가들을 방조하고 고무하는 어려운, 그러나 영예로운 사명이 부과되고 있다. 전체 평론가들은 자기 사업의 지침으로 되는 맑스-레닌주의 예술론과 문학 예술에 관한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강령적 문헌들을 더욱 심오히 연구하고 평론의 선도성과 과학적 심도를 보장할 것이다.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케네디 집권 2년 간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홍 성 천

케네디가 아이젠하워를 대신하여 미국 대통령 자리에 들어 앉았을 때에 부르죠아 대변자들은 그를 극구 찬양하면서 그가 《더욱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비상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일제히 떠들어 댔다.

케네디 자신도 《평화》니, 《친선》이니, 《리성》이니 하면서 마치도 미국의 침략 정책에 그 어떤 《개변》이나 있을 듯이 가장하여 나섰다.

케네디가 과연 《평화 애호자》인가 하는 것은 그가 집권한 이후 미국 정부가 실시하여 온 정책이 명백히 말하여 준다.

케네디가 걸어 온 지난 2년 간의 행정은 그가 자기의 선행자들 보다도 더 야심적이고 모험적이며, 음흉하고 교활한 전쟁광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 ❊

케네디는 집권 당시 그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 나라와 같은 그러한 조직과 통치 제도를 가진 나라가 견디여 낼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결말이 확연치 않으며》, 《시간은 결코 우리의 편이 아닌》 즉 미 제국주의가 쇠퇴 몰락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 들어 가고 있는 시기에 대통령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집권한 케네디는 미국의 운명을 구원하고 량대 진영 간의 《결사적인 투쟁》에서 공산주의를 《제거》하고 나아가서는 미국이 지배하는 《자유로운 독립 국가들의 세계적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을 자기의 《력사적 사명》으로 내세웠다. 미국 지배층들이 말하는 《세계적 공동체》란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 해방 운동을 소멸하고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며 세계적 규모에서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제패를 위한 이 침략적 야망을 실현할 목적으로 미국 지배층들은 이른바 《기본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였으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에 광분하였다. 케네디 정부의 《기본 전략》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여 온 침략과 전쟁 정책의 총화이며 세계 제패를 위한 그들의 기본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세계 제패를 위한 케네디의 소위 《기본 전략》의 기초에는 무제한한 군비 확장과 모험적인 전쟁 도발 정책이 가로놓여 있다.

이에 대하여 케네디 자신이 《현 세상은 위험한 세상이며 이 위험에 대한 대비책은 오직 힘 뿐이다. 우리는 이 20개월 간에(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된 이후—필자) 우리 나라의 힘을 재건하였다》고 공공연히 말하였다.

케네디 정부는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를 강화함에 있어서 력대 미국 정부를 훨씬 릉가하였다.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된 첫해인 1961년 미국의 군사비는 그 전해에 비하여 무려 60억 딸라나 증가하였으며 1962년에는 1961년에 비하여 40억 딸라를 릉가하였다. 1962~1963년 예산에서 직접적 군사비만도 527억 딸라에 달하는바 이는 미국 력사상 평화 시기의 가장 방대한 군사 예산이며 미국이 조선 침략 전쟁을 감행하던 시기 최고에 달한 해의 군사 예산보다도 많다.

케네디 정부는 이와 같은 방대한 군사 예산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한 전면 전쟁과 《핵 전쟁》 준비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면서 개별적 사회주의 국가들을 침략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여 왔으며 추구하고 있다. 케네디의 이 군사 전략은 모든 형태의 실제적인 침략 전쟁을 포괄한 것으로서 덜레스의 악명 높은 《전쟁 접경》 정책, 《대량 보복》 전술을 릉가하는 것이다.

케네디는 《일정한 정황 하에서는 핵 무기를 먼저 사용하여야 하며》 《핵 파괴력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대참화를 가져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위험을 무릅쓸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적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떠벌리였다. 다시 말해서 미국 지배층들은 모든 모험을 무릅쓰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선손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케네디 정부는 미국이 핵 무기 분야에서 쏘련에 결정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핵 전쟁》 준비 하나에만 매여 달려 가지고서는 그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배층들은 핵 무기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위한 상용 정규 부대와 상용 무기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핵 공갈로써 세계 인민을 위협하는 한편 세계 도처에서 상용 무기에 의한 《국부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기도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하다. 미국 기자 올소프의 추산에 의하면 미제가 《쿠바를 공격하고 점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 지상 부대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그 자그마한 섬에 빠뜨려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이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면 세계의 그 넓은 지역에서 타오르고 있는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탄압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조건에서 케네디 정부는 자기의 동맹국들과 추종 국가들을 리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약점을 메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네디 정부는 해외의 군사 기지와 해외 주둔 미군 부대들을 확충하는 한편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서부 독일 복수주의자들의 재무장을 촉진하였으며 나토, 세아토, 쎈토 등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데 광분하였다.

소위 이것이 《평화 탐색의 노력》, 《군비 축소》와 《핵 무기 금지》를 위한 케네디의 노력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기본 전략》의 주되는 목적이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진영에 대처하는 데 있다는 것

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과 그 위력의 급속한 장성은 미제의 침략 정책을 제어하는 강대한 요인으로 되고 있으며 그들의 대외 침략의 근본적인 장애로 되고 있는 것이다.

케네디 정부는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전쟁 준비와 도발 행동을 감행하는 한편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분렬 와해시키기 위한 악랄한 음모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음모에서 유고슬라비야의 수정주의자들은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 국무 장관 러스크 자신이 미국이 유고에 주는 《원조》의 목적이 《유고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불화를 일으키는 영향력으로 되였으며 또한 공산권 내부에 상당한 불일치를 야기시키는 근원으로 되여 온 데 있다》고 말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교살하고 이 나라들에 미국의 새로운 식민주의 멍에를 들씌우는 것은 케네디의 세계 제패를 위한 계획에서 중요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의 3분의 2의 인구가 살고 있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들은 제국주의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후방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케네디가 《이 광대한 중간 지대를 누가 쟁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량대 진영 간의 투쟁에서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오늘 이 지역들에서 식민지 예속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전례 없이 앙양되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전략적 후방은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강력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과 그의 지탱점들을 약화시키고 분쇄하는 중요한 힘이다. 세계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예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그 모두가 강대한 반제 력량으로 등장될 때 미 제국주의는 종국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며 세계 정세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 제국주의는 급격히 앙양되고 있는 민족 해방 운동을 자기들의 최대의 《위기》로 보고 있으며 민족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그렇게도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지배층들은 자기들을 《민족적 독립》과 《자유》의 옹호자로, 《사회적 진보》의 지지자로 묘사하면서 《평화군》, 《진보를 위한 동맹》,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 등 새로운 식민주의의 올가미로 후진 국가 인민들을 예속시키려 하고 있으며 소위 미국의 《사심 없는 원조》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케네디 정부는 이와 같은 기만과 회유술책으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을 예속하는 한편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자기에게 불복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자유 세계에 대한 위협》이니, 《공산주의의 침투》니 하는 구실 밑에 탄압과 무력 침공을 서슴 없이 감행하여 나선다.

케네디는 집권하자마자 쿠바가 미제의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여 자주적인 길에 들어 섰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하여 그를 반대하는 직접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으며 작년 10월과 11월에는 대규모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혁명적 쿠바에 대한 야수적인 도발 행동을 감행하였다. 쿠바 인민의 단호한 투쟁에 의하여 그들의 기도가 좌절된 지금에 와서도 케네디는 쿠바 혁명을 말살하려는 더러운 기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하면서 계속 강도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있으며 소위 쿠바 위기의 《경험》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그것을 다른 데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쿠바 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자유로운 인민들의 힘은 무진장하며 그것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으며 인민들이 자기의 수령의 주위에 한 몸으로 결속되여 손에 무기를 들고 일어 설 때 그 어떤 원쑤의 침략도 물리치고 주권을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피델 카스트로 수상은 혁명적 쿠바 인민의 간고한 반미 투쟁 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빈말 속에는 그 어떠한 담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담보는 오직 우리의 전투적인 결의 속에만, 모든 원쑤들의 공격을 격퇴할 우리의 영웅적인 결의 속에만 있다. 담보는 열병식에서 당신들이 본 그 무기들과 그 열병식에 내여 놓지 않은 그보다 더 많은 무기 속에 있다. 담보는 우리 나라 인민의 영웅주의, 가장 곤난한 위기에 시련을 겪은 영웅주의 속에 있다》.

미제의 세계 제패를 위한 정책에서 아세아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케네디가 《중요한 문제, 어떤 의미에서는 최대의 문제》는 아세아에서 중국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아세아 인민들의 각성, 이 지역 사회주의 국가들의 존재와 그 위력의 급격한 장성, 이 나라들의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 인민들에 미치는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타격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지배층들은 아세아에서 총 붕괴에 직면한 자기들의 통치 체계를 수습하려고 그처럼 발광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더욱 더 발악적으로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남부 월남, 대만 등에 계속 미군 전투 부대들과 살인 무기를 대량적으로 끌어 들이여 각종 군사적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지역들에서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케네디 정부는 아세아인끼리 싸우게 함으로써 그들의 흉악한 목적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미 국무 장관 러스크는 미국이 인도에 주는 《원조》의 목적이 《인도로 하여금 중국과의 문제 해결에 응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제는 인도 반동 계층들을 사촉하여 중 인 국경 문제를 더욱 격화하고 장기화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는 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실현함에 있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그들을 《돌격대》로 리용하는 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얼마 전에 케네디는 일본 각료들에게 《당신들은 중국을 제어하는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미국에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하며 일본의 군사력을 급속도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로골적으로 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의 군사 파쑈 도당들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결탁시킴으로써 침략적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며 이를 세아토와 련결시켜 아세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포위선》을 형성하려는 음모를 드러내 놓은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미 제국주의가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며 현대 식민주의의 지주이라는 것, 케네디가 말하는 소위 《평화》, 《친선》, 《협상》, 《진보》 등 달콤한 말은 그의 강도적인 침략적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공담에 불과하며 미제야말로 가장 모험적이며 호전적인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케네디가 집권한 후 추구하여 온 세계 제패를 위한 모든 모험적인 침략 정책은 미제의 침략적 본성이 추호도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로골화되였음을 말하여 준다.

원래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타국 인민들의 피와 땀으로 부유해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시도 침략과 략탈을 멈춘 일이 없으며 또 없을 것이다. 아이젠하워나 케네디나 다 월가의 수급 사환'군이며 그들이 실시하는 정책은 그들 개인의 정책인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 독점체들의 정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그 어떤 자가 들어 앉건 그들의 악명 높은 침략과 전쟁 정책에는 아무런 본질적 차이도 있을 수 없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정책이 더욱더 야심적이고 모험적이고 음흉하고 교활하고 파렴치해지고 있을 뿐이다.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미제에 대한 그 어떠한 환상도 품을 수 없으며 오직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자기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큐바, 라오스, 알제리아, 남부 월남 인민들의 투쟁이 확증하여 준다.

오늘 미 제국주의는 그가 발을 붙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인민들의 단호한 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철저히 고립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쌓아 놓은 전략적 지탱점들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거나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 급격히 앙양되고 있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 자본의 기반을 반대하는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의 투쟁,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수천 수억의 평화 옹호 력량 앞에서 미 제국주의는 공포에 떨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 식민지 및 령토권 쟁탈을 위한 내부 모순은 제국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지리멸렬케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여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는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가 더욱더 곤난하게 되고 있으며 침략적 야욕을 실현하기가 어렵게 되였다.

미국의 시사 평론가 리프맨은 《국제 사변들은》 미국이 원하는 《길을 따라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케네디의 국가 안전 문제 고문 헨리 키싱거가 미국의 전도에 대하여

《만일 우리의 자유가 앞으로 더 약화된다면 우리는 세계의 광대한 지역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비명을 올린 것은 우연하지 않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 위력을 강화하며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인민들과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를 두목으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제어할 수 있으며 장구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최고 인민 회의 제 3기 제 1차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화는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쟁취하여야 합니다. 오직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부단히 강화하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더욱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함으로써만, 모든 평화 력량을 튼튼히 결속하고 온갖 투쟁 방법을 배합하여 도처에서 제국주의 전쟁 방화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타격을 줌으로써만 새로운 세계 대전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공고한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미제가 타격을 받았을 때에는 움추려드나 일시라도 여유가 생길 때에는 머리를 쳐들고 덤벼 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멸망에 직면한 그들의 처지를 수습할 수 없으며 그들은 마침내 인민들의 투쟁의 거류 속에 묻히여 영원히 매장되고야 말 것이다.

미 제국주의는 우리 민족을 인위적으로 분렬시키고 조선 인민에게 민족적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철천지 원쑤다. 오늘 미제는 남조선을 침략 전쟁을 위한 전략 기지로 전변시키고 미군 전투 부대들과 신형 무기들을 대량적으로 끌어 들이고 있으며 각종 군사적 소동을 일으킴으로써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떠나서는 나라의 진정한 평화적 통일도, 장구한 평화도 말할 수 없다.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 이것은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실로 사활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우리는 미 제국주의를 남조선에서 몰아 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 냄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달성할 것이며 극동에서의 장구한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칼 맑스의 《잉여 가치 학설사》에 대하여

최근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는 칼 맑스의 《잉여 가치 학설사》(제 1부)를 출판하였다.

맑스는 정치 경제학 연구를 1840년대 초에 시작하여 20 여년 간 특히는 1850년 이후의 10년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의 경제 리론을 확립하였다. 그의 천재적 로작 《잉여 가치 학설사》는 1862년 1월부터 1863년 7월까지 사이에 쓴 것이다.

《잉여 가치 학설사》는 맑스주의 사상의 발전 특히는 맑스주의 정치 경제학 리론의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맑스는 력사적 유물론과 잉여 가치 리론이라는 두 개의 위대한 발견으로써 인류 사회 발전 행정에 대한 견해에서 완전한 혁명을 일으켰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해명하지 못한 사회 발전 법칙은 맑스에 의해서 비로소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

특히 맑스는 잉여 가치 리론을 기초로 하여 처음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법칙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였다.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자 간의 계급 투쟁은 필연적이며 이 계급 투쟁은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의 멸망과 로동 계급의 승리 즉 사회주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을 자기의 위대한 로작 《자본론》에서 서술하였다.

세 권으로 된 《자본론》은 그 내용으로 보아 주로 맑스 자신의 경제 리론이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다. 《자본론》 제 4권으로서의 《잉여 가치 학설사》는 주로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에 대한 맑스의 비판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맑스는 《잉여 가치 학설사》를 자기 로작의 력사적 부분, 력사적-비판적 부분 또는 력사적- 문헌적 부분이라고 불렀다.

맑스는 《잉여 가치 학설사》에서 잉여 가치 리론을 중심으로 하여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의 발생, 발전 및 타락 과정을 전면적으로 분석 비판하였다. 바로 이러한 행정에서 진정으로 과학적인 맑스주의 정치 경제학, 프로레타리아 정치 경제학이 확립되였다.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의 발전 과정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과정의 반영이였다. 따라서 맑스는 《잉여 가치 학설사》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발생, 발전 및 쇠퇴 과정을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본론》과 《잉여 가치 학설사》는 유기적으로 관련되여 있으며 전일체의 각이한

부분들이다.

맑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집필을 계획하던 초기에는 《잉여 가치 학설사》를 《자본의 생산 과정》(현재 《자본론》 제 1권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서 취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맑스는 자기 로작의 연구와 집필 과정에서 《잉여 가치 학설사》를 별개의 책으로 출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였으며 그것이 자기 전체 로작의 한 부분이라는 견해를 루차 표명하여 왔다. 그러므로 엥겔스와 레닌이 《잉여 가치 학설사》를 《자본론》 제 4권이라고 부른 것은 완전한 근거를 가진 것이며 정당한 것이다.

레닌은 자기의 저서들에서 《잉여 가치 학설사》의 많은 명제를 인용하였다. 특히 절대 지대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제의 산물이라는 맑스의 명제들을 루차 인용하였다. 또한 레닌은 《잉여 가치 학설사》에는 부르죠아 민주주의적 의미에서의 토지 국유화의 혁명적 의의도 아주 명료하게 표시되여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잉여 가치 학설사》는 맑스와 엥겔스의 생전에 출판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카우쯔끼에 의하여 편집되여 1905~1910년 기간 처음으로 발표되였다.

이 카우쯔끼 판은 허다한 근본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카우쯔끼 자신은 맑스주의를 배반하고 수정주의로 전락하였던 것만큼 《잉여 가치 학설사》를 편집하는 데서 벌써 기회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내 놓았으며 혁명적 맑스주의로부터 점점 더 물러 서고 있었다.

그는 《잉여 가치 학설사》가 《자본론》 제 4권이 아니며 그것은 아무런 내'적 련관도 없는 《혼돈물》인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제멋 대로 가필하면서 혁명적 맑스주의의 극히 중요한 명제들을 수정하였다.

카우쯔끼는 맑스 자신이 작성한 《잉여 가치 학설사》의 목차조차 무시하였으며 그것을 책에 실리지도 않았다. 또한 맑스의 의도와는 상반되게 부르죠아 경제학자들을 년대순에 따라 배렬하였다. 맑스는 론리적 련계와 순서에 따라 배렬하였던 것이다.

그는 제목을 다는 데서도 완전히 객관주의적 립장을 취하였으며 특히 자본주의 하에서의 로동 계급의 절대적 빈궁화의 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맑스의 론거를 삭제하여 버렸으며 또한 부르죠아 경제학자들에 대한 맑스의 분노와 열정적이며 신랄한 표현을 완화시키려고 하였고 《천치》, 《주구》, 《협잡군》 등과 같은 형용어를 어디서나 빼놓았다.

이상과 같은 엄중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카우쯔끼 판으로써는 도저히 맑스의 의도와 그의 리론의 진수를 정확하게 리해할 수 없었다.

때문에 어디까지나 맑스의 견해와 그가 수립한 리론을 철저히 담은 신판이 요구되였다. 이 요구에 순응하여 쏘련 공산당 직속 맑스-레닌주의 연구소에서는 《잉여 가치 학설사》(《자본론》 제 4권)를 3부로 나누어 출판하게 되였다. 조선 말 판은 이 《연구소》 판(로문 및 독문)을 대본으로 하였다.

* *

맑스의 천재적 로작 《잉여 가치 학설사》 제 1부의 중심적 내용에 대하여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잉여 가치 학설사》는 《정치 경제학의 핵심인 잉여 가치 학설의 상세한 비판적 력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자본론》 제 2권의 엥겔스 서문에서).

맑스는 《잉여 가치 학설사》에서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이 발생한 순간으로부터 그 《무덤》으로서의 속류 정치 경제학에 이르기까지의 그 발생, 발전 및 타락의 전 과정을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해명하였다. 그것은 17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 기간을 포괄한다.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의 발전 과정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과정 자체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은 그 발생, 발전의 시기 즉 계급 투쟁이 아직 발전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진보적 경향성을 띠였고 과학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을 대표하였던 《고전 정치 경제학》파의 학설에는 계급적 제한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는 고전 정치 경제학자들의 공적을 평가한 동시에 그들 자신의 계급적 제한성에서 오는 불철저성, 이중성, 비과학성의 천명에 힘을 기울였다.

맑스는 《정치 경제학이 부르죠아적인 한에 있어서는…그것은 계급 투쟁이 아직 은밀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오직 간혹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동안만 과학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부르죠아지가 정권을 장악한 순간부터 《계급 투쟁은 실천적으로도 리론적으로도 더욱 선명하게 표현되고 그리고 위협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그와 더불어 과학적인 부르죠아 경제학에 림종의 시각이 왔다. 그 후부터는 벌써 이런 또는 저런 리론이 옳은가 또는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본가에게 유리한가 또는 유해한가, 편리한가 또는 불편한가, 경찰의 비위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였다》(《자본론》 제 1권 제 2판에 대한 맑스의 발문에서)고 하였다.

로자 간의 모순이 격화됨에 따라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의 타락과 비속화 과정은 급속히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속류 정치 경제학이 《고전 정치 경제학》을 구축하고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속류 정치 경제학은 18세기 말 19세기 초경에 발생하여 리카도 학파의 붕괴 후 오늘날 제국주의 시기까지의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을 대표한다. 초기의 속류 정치 경제학자들은 겉으로는 고전 정치 경제학의 제자로, 계승자로 자처하였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그들은 고전 정치 경제학이 가지고 있던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알맹이는 내던지고 비과학적인 요소와 비속한 견해에 매달렸다. 바로 이렇게 자기의 출발을 개시한 속류 정치 경제학에는 그 때나 지금이나 막론하고 어떠한 과학적 리론도 없으며 진보적이며 창조적인 견해는 전혀 없는 것이다.

《잉여 가치 학설사》 제 1부는 고전 정치 경제학, 따라서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리카도 이전 학자들의 학설을 취급하고 있으며 제 2부는 주로 리카도의 학설, 제 3부는 리카도 후 시기의 속류 정치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 1부에서는 주로 고전 정치 경제학파에 속하는 중농주의자들과 애담 스미스의 학설이 취급되고 있다.

중농주의는 18세기 초엽과 중엽에 불란서에서 발생하였다. 중농주의는 봉건 사회의 틀 안에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있던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의 표현자들이였으며 그들은 자본주의적 생산 조건을 생산의 영원한 법칙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맑스는 중농주의자들을 《현대 정치 경제학의 조상》이라고 불렀으며 그들의 역할과 의의를 강조하였다.

구라파에서 중농주의 이전에 지배하고 있던 중상주의자들은 잉여 가치가 교환과 상품 판매에서만 발생한다고 보았다면 중농주의자들은 잉여 가치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처음으로 류통 분야에서 생산 분야로 옮겨 놓았다. 그리하여 자본과 잉여 가치에 대한 어느 정도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분석을 위한 기초를 구축하였다.

중농주의 학설의 대표자인 께네는 자기의 유명한 《경제표》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총 자본의 재생산 과정과 류통 과정을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맑스는 이 《경제표》가 현대인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중농주의자들의 학설에는 일련의 모순과 이중성이 내포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본을 부르죠아적 시야의 범위 내에서 리해하였다. 그리하여 자본의 존재 형태들인 로동 도구, 원료 등을 사회적 제 관계들과 분리시켜 자본으로 보았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를 영원한 자연적인 생산 형태로 보았다.

다음으로 그들은 잉여 가치는 농업에서만 생기며 따라서 농업 로동만이 유일한 생산적 로동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농업에서는 잉여 가치의 생산이 아주 명백하다. 그러나 공업에서는 농업에서와 같이 잉여 생산물, 잉여 가치가 생산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리해되지 않는다. 때문에 그들은 공업에서는 다만 농업에서 제공한 원료의 형태를 변경시킬 따름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공업에서는 잉여 가치 생산 과정이 매매라든가 류통 행위 등에 의하여 복잡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과정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가치 일반의 분석이 필요하다.

중농주의자들은 가치의 개념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가치와 소재 즉 물건을 혼동하였기 때문에 잉여 가치에 대한 철저한 리해를 하지 못하였으며 지대가 잉여 가치의 유일한 형태이며 또 자본 축적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중농주의자들은 잉여 가치를 이중적으로 즉 《자연의 순 선물》로서도 보았고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업에서의 잉여 로동의 생산물로도 보았다.

중농주의자들의 체계는 봉건적 외피

를 띠고 있었으나 그 본질은 부르죠아적이였다. 이러한 본질은 그들의 학설과 정치적 견해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그들은 절대 군주제를 지지하였으나 경제 활동에서는 국가의 간섭을 반대하고 완전한 자유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중농주의는 불란서 부르죠아 혁명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맑스는 또한 애담 스미스의 학설에 내포되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과 이중성을 많이 적발하고 그를 심오하게 분석하였다.

스미스는 가치, 잉여 가치, 생산적 로동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범주들을 설명하는 데서 불철저하였으며 이중적이였다. 그의 견해에는 항상 과학적인 요소와 속류적인 요소가 대립하고 있었다. 스미스 이후의 속류 정치 경제학은 스미스의 리론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알맹이는 버리고 비속한 것에만 매달렸으며 또 오늘날에도 매달리고 있다.

스미스는 처음에 상품의 가치를 그 상품에 포함된 로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로동》(즉 로동력)의 가치 즉 로임에 의해서도 규정하였다. 이 두 번째 규정에서 스미스는 로임을 상품의 가치 척도로 삼고 있다. 왜냐 하면 로임은 일정한 량의 산 로동과 교환하여 얻어지는 상품량과 같으며 또한 일정한 량의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로동량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미스의 이 리론은 결국 상품의 가치가 상품의 가치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모순에 빠지고 있다.

로동 시간에 의한 상품의 가치 규정은 단순 상품 생산의 조건 하에서는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의 조건 하에서 자본, 임금 로동, 지대 등등이 나타나자 스미스는 로동 시간에 의한 가치 규정을 관철시킬 능력을 잃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두 규정 사이에서 부단히 동요하였다(52페지).

스미스는 잉여 가치의 본성과 기원에 관한 연구에서는 혼돈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명백하게 잉여 가치를 부지불로동에서 끌어 냈으며 로동자의 생산물에서의 《공제물》이라고 불렀다. 또한 새로 창조된 잉여 가치는 재료와 기구에 지출된 자본 부분 즉 불변 자본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중농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고 있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잉여 가치를 농업에서만 생기는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잉여 가치 일반과 잉여 가치의 특수한 형태들(리윤과 지대)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잉여 가치와 리윤을 혼동하였던 것이다. 잉여 가치를 전적으로 로임에 지출된 자본 부분(가변 자본)에서 끌어 내면서도 그것을 곧 리윤의 형태로 즉 총 자본에 관련시켜 고찰하였다. 때문에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 스미스의 큰 오유는 리윤, 지대, 로임을 가치의 원천으로 본 데 있었다. 그는 리윤을 낳는 자본과 지대를 낳는 토지를 교환 가치의 자립적인 원천으로서 묘사하였다. 그러나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과 토지(자연력도 포함한 로동 조건)는 로동 과정에서 사용 가치의 창조에 있어서는 생산적으로 작용하나 결코 가치의 원천으로는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상품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것에 포함되여 있는 로동 시간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스미스의 오유는 사회 생산물의 전체 가치를 소득에 귀착시킨 것이다. 그는 사회 생산물의 전체 가치에서 곡물 가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변 자본 부분을 무시하였다(그에게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았고 자본을 고정 자본과 류동 자본으로만 나누었다). 따라서 그는 총 생산물이 총 소득과 동등하다고 하였다.

사회 생산물 중에서 소비품만을 보면 그것은 현물로서는 전부 소비 폰드로 들어 간다. 그러나 그 소비품도 가치로서 보면 거기에는 불변 자본 부분이 포함되여 있으며 따라서 소비품의 전체 가치를 소득으로만 볼 수 없으며 그것이 전부 소비 폰드로 될 수 없다. 스미스는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동요하였다. 속류 정치 경제학자들은 이 오유를 그대로 물려 받아 가지고 사회 총 생산물을 전부 소득으로 인정하면서 다 소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맑스는 가치 규정을 비롯한 많은 문제에서 스미스가 발로한 모순들을 분석 비판하면서 그의 모순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169페지).

《잉여 가치 학설사》 제 1부에서 가장 많은 페지를 차지하는 제 4장에서는 생산적 로동과 비생산적 로동에 대한 문제들이 분석되고 있다. 무엇이 생산적 로동이며 무엇이 비생산적 로동인가?

중농주의자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농업 로동만이 생산적이라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본주의적 견지에서는 《순 생산물》 즉 잉여 생산물을 창조하는 로동이 생산적이라는 정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스미스도 자본(가변 자본)과 교환되는 로동 즉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로동은 생산적이며 소득과 교환되는 로동(봉사)은 비생산적이라고 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견지에서 생산적 로동과 비생산적 로동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스미스는 다른 한편으로 잉여 가치 생산을 문제로 삼지 않고 상품을 생산하는 로동 즉 가치를 생산하는 로동은 다 생산적이고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로동 즉 인'적 봉사만을 수행하는 로동(례컨대 하인의 로동)은 비생산적이라고 규정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로동이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가 하는 것은 문제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생산적 로동과 비생산적 로동의 규정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범위를 벗어 나는 것으로 된다.

생산적 로동과 비생산적 로동의 구별은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구별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적 로동의 계획 등등에서 필요하다.

어떠한 인간의 로동이 참으로 생산적인 로동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무런 자본도 존재하지 않고 로동자가 자기의 잉여 로동 즉 그가 창조한 가치 중 그가 소비한 가치를 초과하는 잉여 분을 자신이 차지한다고 하자. 이런 사태 하에서만 그러한 로동자의 로동은 참으로 생산적이라고 즉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71~172페

자).

스미스와 기타 고전 정치 경제학자들은 비생산적 로동에 대한 자기들의 규정에 따라 국가 관리, 군인, 승려, 법관 등등 소위 《고급》 로력자들을 경제적 관계에서는 어리광대나 하인과 동렬에 놓았고 또한 이 비생산적 로력자들은 생산적 로동자들을 뜯어 먹고 사는 식객이며 기생자라고 락인을 찍었고 더 나아가서는 토지 소유자, 상인, 자본가들을 《열매를 맛보기 위하여 태여 난》 계급들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스미스의 이 규정에 격분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즉 속류 정치 경제학자들은 비생산적 로력자의 소비가 생산의 원천이라느니, 비생산적 로동도 생산에 효과적으로 참가한다느니, 생산적 로동자의 비중이 낮은 것이 나라에 유익하다는 등 비속한 리론을 조작해 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온갖 무위도식하는 부자들과 《비생산적 로력자들》의 기생충적인 생활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　　*

맑스의 위대한 로작 《잉여 가치 학설사》는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이 로작을 통하여 맑스주의 정치 경제학이 얼마나 험한 길을 헤치고 형성되였는가를 깊이 리해하게 된다.

맑스는 이 로작에서 유물 변증법에 의거하여 부르죠아 경제학자들의 리론의 방법론적 및 계급적 근원을 과학적으로 폭로하였다. 그리하여 온갖 반동적이고 적대적인 리론과 견해를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제국주의 시기에 자본주의 일체 모순이 극도로 격화되고 계급 투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은 어느 조류, 어느 류파를 물론하고 전면적인 타락의 길에 들어 섰으며 과학과는 완전히 등지고 제국주의의 공공연한 변호자로 전락하였다.

례컨대 케인즈와 그 추종자들은 비생산적 소비를 무한히 장성시킴으로써 공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사스의 반동적인 견해를 되풀이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현대 말사스주의자들은 맑스가 이미 백년 전에 《잉여 가치 학설사》와 기타 로작들에서 철저히 분쇄한 말사스의 《인구론》을 다시 들고 나서서 제국주의 전쟁을 공공연히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현대 부르죠아 정치 경제학자들은 맑스가 이미 천명한 로동 계급의 절대적 및 상대적 빈궁화의 법칙을 부인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도 이 모든 점에서 맑스의 리론이 낡았다고 지껄이고 있다.

그러나 맑스에게서 낡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가 천명한 모든 법칙과 리론들은 오늘의 현실에서 더욱 자기의 정당성이 확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맑스의 《잉여 가치 학설사》를 심오히 연구함으로써 정치 경제학 리론 학습을 더욱 심화할 수 있으며 현대 부르죠아 경제 리론과 수정주의와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할 수 있다.

조선 로동당 출판사
맑스-레닌주의 고전 편집부

문답 학습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3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이후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나고 있다.

당 생활이 강화됨으로써 당 규약상 의무 수행에서 당원들의 의식성과 자각성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된 방대한 혁명 과업과 나라에 조성된 혁명 정세는 각급 당 조직들 앞에 당원들의 당 생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당 생활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당 생활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매개 당원들이 자기가 속한 당 조직을 통하여 당 규약상 의무를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실천하도록 생활화하고 습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당원들이 당 규약에 제시된 당원의 의무와 그때그때 당 조직으로부터 위임된 과업을 철저히 실행하며 부단히 자체의 당성을 단련하기 위하여 규약을 학습하고 당 생활 총화에 정상적으로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의 이러한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당 생활 체계는 오직 당원 자신의 자각적인 태도와 그에 대한 당 조직으로부터의 체계적이며 일상적인 지도가 옳게 결합됨으로써만 철저히 수립될 수 있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생활화하고 습성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당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 생활 체계 확립에서 기본 문제이다. 당 규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개 당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로서 당 생활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각성에 의해서만 옳게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당 생활에 대한 당원들의 자각적인 태도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당 규약에 대한 깊은 인식에 기초하여 장기적이며 의식적인 노력을 거쳐야만 확립될 수 있다.

당 규약의 학습은 당 생활의 선결 조건으로서 당원들이 당 생활을 자각적으로 실현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 규약 학습은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개 당원들의 자체 연구이다.

당원들은 당원의 의무 조항을 반복 연구함으로써 그에 정통하여야 한다. 동시에 당 규약을 매 시기 제기되는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밀접히 결부시켜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이렇게 될 때에만 당원들은 당 규약상 의무와 당 생활의 원칙, 당 규률의 본질을 잘 알고 당 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당 생활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당 규약상 의무 수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는 것이다.

LIBRARY OF CONGRESS

당 생활 총화는 당원들이 자체의 힘에 의해서 당 생활을 자각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하기 위한 수단이다.

당원들은 당 생활을 총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당원의 의무를 어떻게 실행하였고 혁명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총화하게 됨으로써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며 공산주의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더욱 원만히 갖추게 된다.

당 생활 총화는 당 회의와 엄격히 구분하여야 한다.

물론 당 생활 총화와 당 회의는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그것은 당원들의 당성 단련과 혁명 과업 수행 등 모든 활동이 당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 생활 총화에서는 매개 당원들이 당 규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성 단련, 혁명적 수양 및 자질 향상과 관련된 것을 주로 총화한다면 당 회의는 매 시기 당 조직 앞에 제기되는 혁명 과업 실행에로 당원들을 조직 동원하며 분공을 조직하고 그 실행 결과를 총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당 생활 총화에서 중요한 것은 매개 당원들이 자체의 당 생활을 스스로 조직하며 자각적으로 검토 총화하는 습성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은 당 생활 총화를 검토식으로가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꺼리낌 없이 말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따뜻한 동지적 충고와 협조의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 생활 총화의 거점은 당 분조와 당 세포이다.

분조에서는 매월 1회 세포에서는 매 분기 1회 정도 당 생활 총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분조에서의 당 생활 총화는 분조 내 매개 당원들이 자신의 당 생활에서의 우결함을 스스로 내놓고 총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나타난 부족점을 동지적 충고와 방조를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조 내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 어떤 편향성이나 약한 고리가 나타났을 때에는 해당한 자료를 제기하고 당원들의 토론에 붙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세포에서의 당 생활 총화는 당원들의 당 생활을 항상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세포 내 당 생활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극복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당 생활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당원들을 당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그들에게 구체적인 분공을 조직하는 것이다.

당원들이 당 회의에 정상적으로 준비있게 참가하여 문제 토의에서 적극성을 발휘하며 당 조직에서 위임된 분공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은 당 생활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이것은 당원들을 집단적으로 교양하며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 세포들은 모든 당원들이 제기된 혁명 과업의 본질과 수행 방도를 철저히 인식하고 당 결정 집행에서 창조적 열성을 다할 수 있도록 당 회의를 준비있게 진행하며 당원들을 제기된 혁명 과업의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분공을 조직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당적 분공을 받음으로써 당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당적 위임의 수행을 위하여 온갖 지혜와 창발성을 발휘하게 된다.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 생활 체계와 함께 당 생활 지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당 생활 지도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당원들이 당 규약상 의무를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자각적으로 정확히 실천하도록 당 조직들이 그에 대한 지도를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것은 세포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며 당 생활에서 간부들이 모범을 보이도록 하며 특히 당 생활에서의 우수한 경험을 일반화하는 등 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 생활을 직접 조직하는 당 세포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도, 시, 군 및 공장 당 위원회들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당 생활의 거점으로서의 당 세포가 당원들의 당 생활을 옳게 조직 진행할 수 있도록 세포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를 잘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포 위원장과 위원들을 당에 무한히 충실하고 군중의 신망이 높은, 그리고 실지 사업에서 단련되고 능력이 있는 핵심들로써 꾸리고 그들의 활동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주어야만 당 생활 강화에서 세포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간부들의 당 생활이 철두철미 자각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되도록 하며 그들 자신이 당 생활을 통하여 실천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당원들의 당 생활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또한 당 세포들에서 진행되는 당원들의 당 생활 정형을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경험을 일반화하며 결함을 시정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 생활 지도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특히 당 위원회 부서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부와 선전 선동부는 다 같이 당 간부 사업과 산하 당 조직들을 틀어 쥐고 당원들의 당 생활을 지도하며 당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 조직들과 당원들을 다 움직이게 하는 부서들이다.

당 생활 지도부로서의 조직부는 당원들의 당 생활을 일상적으로 료해하고 그들에 대한 지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선전 선동부는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결함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담당 지도원들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당 조직들을 틀어 쥐고 발동시키며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고 군중을 움직이도록 지도 방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 시, 군 당 위원회들과 공장 당 위원회들은 당원들의 당 생활에서, 당 생활을 조직 지도하는 세포들의 사업에서 우수한 경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그를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광범히 전행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 각급 당 위원회들과 당 세포들이 당 사업의 기본 고리인 당 생활 지도에 력량을 집중하여 당원들의 당 생활을 더욱 강화한다면 당 사업과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풀려 나갈 것이다.

조 선 협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데 은행 통제가 어떤 역할을 노는가

현 시기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은행 통제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로동 행정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중심적인 문제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로동력의 랑비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을 수 있다. 생산 조직을 개선하는 것이라든가, 로동 조직을 합리화한다든가 또는 자재 공급 사업을 제때에 정확히 진행한다든가 하는 이 모두가 다 그것을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그러나 이 모든 방도들을 다 효과 있게 리용하게 하는 것은 결국 관리 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창발적으로 노력하는가, 얼마나 적극성을 발휘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다.

은행 통제, 그 중에서도 로임 폰드 리용에 대한 통제는 관리 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력의 합리적 리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바로 그를 위하여 높은 창조적 열의와 무궁무진한 지혜를 발휘하게 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로임 폰드 리용에 대하여 통제한다는 것은 기업소들로 하여금 그가 수행한 계획 수행률에 상응하게 로임 자금을 적립하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업소에서는 그의 계획 수행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종업원들에게 줄 로임 자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로력이 생산 계획 수행률과 꼭같은 비률로 증가되게 된다면 개별적 일'군들에게 돌아 갈 분배 몫은 그전과 여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보다 적은 인원으로써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할 때에라야만 매개 일'군들에게 차례질 몫이 증가된다.

그리하여 로임 폰드 리용에 대한 은행 통제는 기업소 일'군들로 하여금 보다 적은 수의 인원으로써 부과된 기업소 계획 과제를 수행하는 데 물질적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로임 폰드 리용에 대한 통제는 기업소들에서 특히 생산 및 로동 조직을 개선하도록 자극한다. 기업소 계획 수행률은 개별적인 종업원들의 계획 수행률을 단순히 합계한 것과는 다르다. 개별적 일'군 또는 개개 직장의 계획 수행률을 합계한 것은 기업소 전체적인 계획 수행률보다 높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낮을 수도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따라 좌우된다. 생산 및 로동 조직이 치밀하고 정확하게 되여 비생산 인원이 축소되고 직접공의 비중이 증대되였을 때에는 기업소 계획 수행률이 매개 직장, 매개 일'군들의 계획 수행률의 합계보다 더 높아지고 로임 자금의 규모가 보다 커지게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로 기업소 계획 수행률은 낮아지게 되고 로임 자금도 감소되게 된다.

그러므로 로임 자금의 크기를 기업소 계획 수행률에 의해 규정하는 것은 일'군들로 하여금 생산 조직과 로동 조직을 부단히 개선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한다.

이와 같이 로임 폰드 리용에 대한 은행 통제는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자극함으로써 기업소에서의 로동력의 합리적인 배치와 보다 절약적인 리용을 위해 높은 적극성을 발휘하게 하며 로동 행정 사업의 개선을 가져 오게 한다.

이것은 평양 블로크 공장에 대한 중앙 은행 평양시 평천 구역 지점 일'군들의 통제 경험이 잘 실증하여 준다.

평양 블로크 공장이 1962년 상반년 계획 수행에서 적지 않은 로력의 랑비를 가져 왔다는 것을 알게 된 평천 구역 지점 일'군들은 이러한 현상을 시정시키기 위하여 3.4분기 초에 이 공장에 대한 현지 검열을 진행하고 로임 폰드 리용에 대한 통제를 일층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그 결과는 이 공장 지도 일'군들이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데 대하여 더욱 높은 관심을 갖게 되였으며 하반년에는 로력 조직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게 되였던 것이다.

그러면 현 시기 로임 폰드 리용에 대한 은행 통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기업소들에서 생산 계획과 로력 계획 및 로임 폰드 계획을 정확히 작성케 하며 그의 계획 규률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 계획과 로력 계획 및 로임 폰드 계획은 서로 정확히 련결되여야 한다. 만일 이 계획들 간의 련계가 정확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통제가 약화될 수 있으며 허다한 로력의 랑비가 초래될 수 있다.

례컨대 과거 일부 기업소들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로력 계획에서는 비재적 로력, 사회적 동원 로력, 가내 작업반 로력이 증가되여 사실상 기업소의 로력수는 증대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계획은 높이지 않는다면 로력을 절약할 데 대한 관심이 적어질 수 있으며 부당한 로력의 랑비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로임 폰드 계획 작성에서는 종업원들의 근속 년한, 각종 상금과 가급금의 규모를 정확히 타산함으로써 로임 폰드의 무원칙한 《예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은 은행 통제로 하여금 공장의 생산 및 로동 조직 개선에 자극을 줄 수 없게 한다.

은행은 계획 작성 및 계획 규률 준수에서의 부족점들로 하여 로력 랑비가 없도록 항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은행 통제와 기업소 상급 기관들로부터의 행정 기술적 지도를 정확히 결합하는 것이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케 함에 있어서 은행 통제가 거대한 역할을 놀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그를 위하여서는 또한 구체적인 생산 기술적 지도가 요구된다.

지금 은행은 어떤 기업소에서 기업소 계획 수행률에 의해 조성되는 로임 자금의 크기가 개별적 일'군들의 기준량 수행 정형에 따라 계산한 로임의 합계보다 적을 때에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일시적으로 그 기업소에 로임 자금을 초과 지출한다. 그 조건이란 이런 현상을 시정할 행정, 기술적 대책을 강구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은행 통제와 상급 기관들로부터의 행정 기술적 지도를 결합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상급 기관들이나 은행 기관들은 이 계기를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금속 화학 공업성 광업 관리국 일'군들은 지난 기간 이 계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기업소의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상급 기관들이 기업소에서 제기되는 로임의 초과 지불을 심중히 검토하여 비준하며 기업소들이 그것을 회복하도록 면밀한 지도 대책을 강구할 때 은행 통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된다.

그와 함께 은행 기관들은 기업소의 생산 및 로동 조직에서 결함이 있을 경우에 제재적인 조치 일방만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금적 방조를 주어 상급 기관들로부터의 지도가 관철되게 하며 걸린 문제를 지체 없이 풀어주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 정 선

근로자 제 2호 (루계 216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1월 20일 인 쇄 • 1963년 1월 17일

ㄱ—330045 값 40전

8190 КЫННОДЯ

제 2부

판형 국판, 페지 600페지

이 책은 《서광》 제 1부의 속편으로서 우리 인민이 낳은 불굴의 혁명 투사 박 달 동지의 자서전적인 대장편 소설이다.

《서광》 제 2부는 갑산 공작 위원회를 조직하던 때로부터 시작하여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갑산 공작 위원회가 조선 민족 해방 동맹으로 발전하여 항일 빨찌산들과 함께 싸우던 시기 그리고 일제 경찰에 검거되여 철창 속에서 싸우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박 달 동지가 직접 체험한 제 사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능숙한 조직력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혁명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일제의 감옥에서도 항상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충만되여 공산주의자로서의 절개를 끝까지 고수한 소설의 주인공 김 성호와 그의 전우들의 투쟁 면모들을 감명 깊게 읽게 될 것이다.

《서광》 제 2부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불요 불굴의 투지 등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정신적 풍모들을 생동하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깊이 연구하며 혁명 선렬들의 모범을 따라 그들처럼 일하며, 그들처럼 투쟁하며, 그들처럼 살려는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읽어야 할 귀중한 책이다.

이 책은 민청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5 1-12 8190 3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Цех 1